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김은설·유해미·김재운·박유경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저

자

김은설, 유해미, 김재윤, 박유경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재 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박 유 경 (뉴욕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04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52-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육아정책연구소는 다문화가정, 장애, 농어촌, 저소득층 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들 가정은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어떤 측면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와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육아정책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는 우리 연구소가 농촌의 영유아 보육 및 육아 정책 개발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지원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창의적인 결과물이다. 특히 농어촌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보완하고자 단시간 동안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보육이 요구될 경우 아이를 맡아 돌봐 주는 농촌 자체 자원을 활용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내년도에는 현실에 적용됨으로써 농어촌 영유아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 소멸의 우려가 사회 의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아친화적 사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든든한 양육 지원 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우리 농촌을 만드는 데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3
3. 연구 방법	14
II. 농촌 영유아 양육의 특징	17
1. 농촌 영유아 인구 변화	19
2. 농촌 영유아 양육 가구의 특징	24
3. 선행연구 검토: 농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제언 중심	30
III. 농촌 지역 보육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37
1.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정책 사업	39
2. 긴급·일시 보육 국내 유관 정책 사례	45
3. 호주와 일본의 농촌 및 긴급일시 보육 정책	67
4. 소결	70
IV. 농촌 지역 보육 지원 개선 요구 분석	73
1. 표적 집단 면담(FGI) 결과 분석	75
2.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분석	85
3. 농촌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자 면담 분석	112
V.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제안	121
1. 농촌형 보육 개선 안 마련의 필요성	123
2. 긴급·일시 보육 모델 I: 농촌형 육아도우미	124

3. 긴급·일시 보육 모델 II: “육아파트너가정”	134
4. 농번기 틈새 보육 모델: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137
5. 일시 돌봄 대체 모델: 농촌육아(실내)놀이터	142
6. 농촌 아동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145

참고문헌	149
-------------------	------------

부록	151
-----------------	------------

1. 농촌 영유아 가정의 육아 현황과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151
--	-----



표 목차

〈표 Ⅰ-1- 1〉 농촌 지역 영유아 부모 대상 FGI 실시	15
〈표 Ⅱ-1- 1〉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변화	20
〈표 Ⅱ-1- 2〉 가구주 연령별 귀촌 가구 수(2020-2022년)	21
〈표 Ⅱ-1- 3〉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거주 비율	22
〈표 Ⅱ-1- 4〉 연도별 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구 수	22
〈표 Ⅱ-1- 5〉 전국 및 농촌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현황	23
〈표 Ⅱ-1- 6〉 전국 및 농어촌 지역 유치원 취원 현황	23
〈표 Ⅱ-2- 1〉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24
〈표 Ⅱ-2- 2〉 영유아 부모의 연령 및 학력	25
〈표 Ⅱ-2- 3〉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26
〈표 Ⅱ-2- 4〉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27
〈표 Ⅱ-2- 5〉 취업 영유아 부모의 근무형태	27
〈표 Ⅱ-2- 6〉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28
〈표 Ⅱ-2- 7〉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28
〈표 Ⅱ-2- 8〉 지역에 따른 최초 기관 이용 월령	29
〈표 Ⅱ-2- 9〉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30
〈표 Ⅱ-2-10〉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30
〈표 Ⅲ-2- 1〉 서초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64
〈표 Ⅲ-3- 1〉 일본 패밀리 서포트 이용 비용	70
〈표 Ⅳ-1- 1〉 농촌거주 영아 부모 면담 참석자 배경 정보	75
〈표 Ⅳ-1- 2〉 농촌거주 유아 부모 면담 참석자 배경 정보	80
〈표 Ⅳ-2- 1〉 설문 조사 참여자 특성	85
〈표 Ⅳ-2- 2〉 영농가정의 주 농사 종류	86
〈표 Ⅳ-2- 3〉 부의 직업	87
〈표 Ⅳ-2- 4〉 부의 근무시간	88
〈표 Ⅳ-2- 5〉 모의 직업 종사 현황	89
〈표 Ⅳ-2- 6〉 모의 직업 분포	89
〈표 Ⅳ-2- 7〉 모의 근무시간	90
〈표 Ⅳ-2- 8〉 월 평균 가구소득	91

〈표 IV-2- 9〉 가구 내 자가용 보유 여부 및 부모의 운전 여부	92
〈표 IV-2-10〉 교육/보육 기관 이용 현황	93
〈표 IV-2-11〉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93
〈표 IV-2-12〉 농촌지역의 육아환경 관련 항목 동의 수준	94
〈표 IV-2-13〉 제 특성별 농촌지역 육아환경 관련 항목 동의 수준(5점 척도) ..	96
〈표 IV-2-14〉 거주 농촌 지역 관련 개선 필요사항_1순위	97
〈표 IV-2-15〉 거주 농촌 지역 관련 개선 필요사항_1+2+3순위	98
〈표 IV-2-16〉 기관의 통학차량 이용 여부	99
〈표 IV-2-17〉 미취학 아동 이용 기관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00
〈표 IV-2-18〉 차량 탑승 이동 시간_등원	101
〈표 IV-2-19〉 차량 탑승 이동 시간_하원	101
〈표 IV-2-20〉 가정-기관 중간 경유지에서 셔틀 이용 방안에 대한 이용 의향	102
〈표 IV-2-21〉 평일 낮 시간대 영유아 주 돌봄 방법	102
〈표 IV-2-22〉 평일 낮 시간대 돌봄 방법과 희망 돌봄 방법 간의 일치 여부	103
〈표 IV-2-23〉 희망하는 돌봄 방법이 아닌 경우, 희망 돌봄 방법	103
〈표 IV-2-24〉 희망하는 돌봄 방법(전체 응답자 기준)	104
〈표 IV-2-25〉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 이용 가능 여부	104
〈표 IV-2-26〉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_등원 시간	105
〈표 IV-2-27〉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_하원 시간	105
〈표 IV-2-28〉 정부 지원 온라인 강좌 이용 의향	106
〈표 IV-2-29〉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_1순위	106
〈표 IV-2-30〉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_1+2순위 (중복응답)	107
〈표 IV-2-31〉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필요도	107
〈표 IV-2-32〉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_1순위	108
〈표 IV-2-33〉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_1+2순위(중복응답)	109
〈표 IV-2-34〉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선호 양육 방식	109
〈표 IV-2-35〉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토요일	110
〈표 IV-2-36〉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일요일	111
〈표 IV-2-37〉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새벽	111
〈표 IV-2-38〉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이 필요한 월평균 회수	112
〈표 IV-2-39〉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자녀 연령	112
〈표 V-2- 1〉 농촌 육아도우미 사업 비용지원 체계(안)	128
〈표 V-2- 2〉 농촌형 육아도우미 양성교육과정(안): 교과목 및 시수(안)	131
〈표 V-2- 3〉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관련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133
〈표 V-2- 4〉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관련 근거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134
〈표 V-2- 5〉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관련 근거 규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3조	134
〈표 V-3- 1〉 육아파트너가정 대상 교육 방법	136
〈표 V-3- 2〉 육아파트너가정 서비스 이용 방법	136
〈표 V-3- 3〉 육아파트너가정 제도 운영의 구조	137
〈표 V-4- 1〉 농번기 조조 및 만석 이이돌봄센터 사업 개요	141
〈표 V-5- 1〉 농촌육아놀이터 사업 방안	144
〈표 V-6- 1〉 농촌 아동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구조	147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진행 과정도	16
[그림 II-1-1] 연도별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전국 대비 비율	20
[그림 III-1-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 운영에 대한 보육교직원 책임 및 업무내용	41
[그림 III-1-2]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추진체계	43
[그림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도	48
[그림 III-2-2]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54
[그림 III-2-3]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55
[그림 III-2-4]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추진체계	58
[그림 III-2-5]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설치 과정	59
[그림 III-2-6] 서울 서초구 아이돌보미 및 손주 아이돌보미 신청 및 이용절차	65
[그림 III-2-7] 서울 서초구 아이돌보미 및 손주 아이돌보미 신청 및 이용절차	66
[그림 III-3-1] 호주 IHC 서비스 이용 절차	68
[그림 III-3-2]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도우미 교육 시간과 내용	69
[그림 IV-3-1] S지역아동센터 환경	114
[그림 IV-3-2] A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 환경	116
[그림 IV-3-3] H어린이집 환경	119
[그림 V-2-1] 농촌형 육아도우미 이용 신청 및 절차(안)	126
[그림 V-2-2]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체계(안)	129
[그림 V-2-3]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안)	129
[그림 V-4-1] 농촌 농번기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이용 체계도	140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고 싶어지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형적,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와는 차별되는,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영유아 양육과 보육, 긴급 요구 등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보육 모델을 개발하여 중앙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24~'25년도 신규 정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농촌 영유아 양육 가정의 특성과 육아 환경 및 부모 요구 분석
 - 보육지원의 욕구 파악과 현행 서비스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농촌 영유아의 인구 구조, 농촌 지역 청년 육아 가정의 특징 분석
 - 기존 보육지원 제도의 농촌 적용 어려움 파악
 - 국내외 농촌보육 지원 우수 사례 모색 및 시사점 도출
- 일시적, 긴급한 상황에서 농촌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 농촌 지역에 특화된 '농촌형 육아도우미 파견' 등 영유아 가정의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제도를 개발
 - 농촌형 육아도우미의 자격, 양성 및 지원 방안 및 사업 운영 지침 개발
- 농촌 특색을 반영한 보육 틈새 지원 방안을 검토
 - 기존 보육서비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농번기 등 틈새 보육 제안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농촌의 보육 상황에 적절한 보조적 틈새 보육서비스 모델 마련

다.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관련 문헌, 선행연구, 보육실태조사 등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사전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 분석

□ 면담 조사

- 농촌 영유아 부모 면담
-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등 농촌 보육 제공 관련자들 면담

□ 설문 조사

-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또는 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

- 관계 부처와의 협의회 개최

2. 농촌 영유아 양육의 특징

가. 농촌 영유아 인구 변화

-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감소율의 둔화
- 귀촌가구 및 다문화가정 증가의 영향
- 농촌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아 수의 상대적 높은 비율

나. 농촌 영유아 양육 가구의 특징

1) 가구 특성

- 조부모 동거 비율의 저하
- 부모의 낮은 연령과 학력 분포
- 가구 소득: 도시 대비 87.7%

2) 모 취업 특성

- ☐ 낮은 취업모 비율과 농림어업 종사 4.5%
- ☐ 높은 재택 근무율

3) 자녀 돌봄과 기관 이용 현황

- ☐ 높은 모 단독 육아 비율
- ☐ 이른 기관 이용 시작
- ☐ 높은 어린이집 이용률
- ☐ 낮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

3. 농촌 보육지원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정책 사업

-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 ☐ 농번기 아이돌봄방
 -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나. 긴급·일시 보육 유관 정책의 사례

-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파견되는 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참여 돌봄공동체 구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지원

□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 서울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서비스

- 등하원, 아픈 아이,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

- 서초 아이돌보미는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한 자녀(맞벌이) 이상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월 50시간 아이돌보미를 지원
- 서초 손주돌보미는 서초구 거주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함.

다. 호주와 일본의 농촌 및 긴급일시 보육 정책

□ 호주의 ‘가정 내 보육(IHC)’

- 농어촌 등 지리적 거리로 인해 일반적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대안적 프로그램

□ 일본 ‘가족 지원(패밀리 서포트)’

-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를 받은 지역 주민이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
-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

4. 농촌 지역 보육지원 요구 분석

가. 표적 집단 면담(FGI) 결과 분석

□ 농촌에서 자녀를 돌보며 힘든 점

- 의료 시설의 부족
- 긴급, 일시 돌봄, 연장 보육 서비스의 부족

- 정보 공유의 어려움
- 모의 독박육아와 소외감
- 육아 물품 구매의 불편(영아)
- 교육 및 문화 시설의 낮은 접근성(유아)

□ 보육 기관 이용의 애로점

- 차량운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모 차량이 없으며 자녀 등원이 힘들.
-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녀를 늦게까지 맡길 수 없음
- 연령별 수업 불가능

□ 자녀 교육 관련 우려점

- 공교육의 질과 학원 등 사교육의 질이 도시에 비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자녀가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에 대해 걱정

나.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부모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은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75.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65.5%),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순임.
- 기관 통학차량 이용 비율은 절반가량(49.5%)으로, 등원의 경우 평균 18.05분, 하원의 경우 평균 18.20분이 소요됨,
-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농가정(81.8%)보다는 비영농가정(93.1%)인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농업인 가정에서는 보육 시간에 대한 요구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음.
-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등원 시간으로는 ‘7:30~8:00’(39.2%)과 ‘8:00~8:30’(3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농촌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온라인 강좌를 지원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을 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0.6%임.
 -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으로, ‘영어 교육’(26.5%)과 ‘놀이를 통한 교육’(25.6%)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조기돌봄센터’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농촌형 육아도우미’ 순서였음.

-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위탁할 시 농촌 지역 부모들이 선호하는 양육 방식에 대해,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봄’(57.0%)이 가장 응답율이 높음.

다. 농촌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자 면담

- 농촌 보육 지원 사업(농번기아이돌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현장 방문하고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촌보육지원 모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육아도우미 파견에 대한 회의적인 다수 의견
 - 조기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 입장
 - 농번기아이돌보방에 대한 반응이 좋아 기간 연장하길 희망함.

5.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제안

가. 긴급·일시 보육 모델 I : 농촌형 육아도우미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육아도우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
 -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가정내보육서비스(가정파견형 돌봄인력)를 지원하여 가정내양육을 선호하는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함.
 - 돌봄인력은 농촌 지역의 유희인력을 위주로 모집하고, 가정파견형 돌봄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양성한다.

나. 긴급·일시 보육 모델 II : “육아파트너가정”

- 일정 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육아파트너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pool)을 만들어 두는 제도.
 - 농촌의 영유아 가정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적절한 육아파트너가정이 매칭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영유아 부모는 맡길 자녀를 육아지원가

정으로 데려다 주고 시간이 지나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운영.

다. 농번기 틈새 보육 모델: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 ‘조조보육’이란 농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등원, 등교를 시작하는 정규 시간 이전 이른 아침 시간(오전 6시 30분 ~ 8시 30분 사이)에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2학년 이하) 아동을 돌보아 주는 보육 서비스
- ‘만석보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연장보육이 없는 어린이집 아동의 정규 보육 교육 시간 이후부터 부모 근로 종료 시간까지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로, 아동이 등록된 원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만석보육센터로 와서 2~4시간을 보내고 이후 부모가 와서 데려감.

라. 일시 돌봄 대체 모델: 농촌육아(실내)놀이터

- 키즈카페와 비슷한 개념이나 일시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농촌 지역 부모 간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춤.

마. 농촌 아동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여 부모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 체험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 교육 콘텐츠를 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적, 상호 의사소통 방식의 대화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방안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23년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2022년 동월보다 5.3%가 감소하여 2023년 출산율은 작년 대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23. 7. 26일자). 이러한 출생율의 지속 감소는 어린이집의 수적 감소와도 연동되어 2017년 40,238개였던 어린이집 수가 2022년에는 30,923개로 최근 5년 간 9,300개소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23%의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2). 농촌의 경우에도 2017년 7,964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22년 6,318개소로 줄어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농어촌의 보육 여건이 이전보다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 2022:89).

농촌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영유아 인구수 또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전국 영유아 대비 농촌 영유아 비율의 감소 정도가 이전 연도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본 보고서 그림 II-1-1 참조). 그것은 지난 십수년 간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족 구성이 지속 늘어나기도 했고 청년층의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증가한 점도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농촌의 출생율이 높아지고 귀농귀촌으로 인한 영유아 양육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육아 친화적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촌의 보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양육환경이 풍요롭지 못할 때 그나마 정체되어 있던 영유아 인구 감소율이 다시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즉, 농촌에서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자녀 양육이 도시와는 다른 충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부족한 보육 서비스 환경은 저출생과 이어져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양육환경의 불충분, 불만족을 일으켜 귀농 둔화, 영유아 인구 감소, 농촌 소멸에 이르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그러므로 농촌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 아이를 키우기 쉬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지형적,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와는 차별되는, 농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즉, 현시점에서 청년 인구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촌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 보육시설의 폐원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비율의 증가 등으로 돌봄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육아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육아 인프라의 부족으로 농촌은 도시에 비해 가정 양육으로 자라는 영유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모 근로 특성상 농번기나 야간 작업 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기회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보육 지원 모델 도입으로 상시 보육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현행 보육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외에 가정내 양육 아동을 위한 다양한 틈새 보육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낮아, 일시·긴급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적인 돌봄 인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농촌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농촌형 보육인력을 양성하여 부모의 사고, 질병 등 유사 시 자녀돌봄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장거리 이동 아동을 위한 차량환승체계 도입, 가정보육 질 제고 방안 등을 농촌형 모델의 일부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적용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본 과제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영유아 양육과 보육, 긴급 요구 등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보육 모델을 개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4~'25년도 신규 정책 사업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영유아 양육 가정의 특성과 육아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보육지원의 욕구 파악과 현행 서비스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영유아의 인구 구조, 농촌 지역 청년 육아 가정의 특징을 기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고자 하며, 기존의 보육지원 제도가 농촌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문을 살펴보고 국내외적으로 농촌보육 지원의 우수 사례를 찾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자녀돌봄이 어려운 일시적,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농업인 가정을 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일시적 보육서비스 방안으로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파견 등의 제도를 들 수 있으나, 농촌에서 이 서비스들은 수요의 불충분성과 그로 인한 공급의 불충분성이 맞물려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적은 아동 수로 인해 시간제보육을 개설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지리적 여건과 인구 부족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과 장거리 파견에 어려움이 있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기대되는 역할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에 특화된 '농촌형 육아도우미 파견' 등 영유아 가정의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육아도우미 파견 사업 추진을 위한 육아도우미의 자격, 양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 영유아 가정이 기존의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촌 특색을 반영한 보육 틈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 등 노동으로 바쁜 시기에 부모는 하루 중

이른 시기에 일터로 향해야 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 등 보육 제공 시설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예, 8시 30분)에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함께 일을 나가야 하는 가정이라면 보육 지원의 욕구를 절실히 가졌을 수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농번기 등 일시적 기간 동안 일일 중 이른 아침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용 아동 수의 부족으로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본 시간 이후 보육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 농촌의 보육 상황에 적절한 보조적 틈새 보육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농촌 영유아(초등 2학년까지 포함)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스마트 교재·교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촌에서 자라나는 영유아나 아동이 도시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비교하여 교육적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혹은 농촌의 교육을 보다 풍부하고 양질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육 또는 교육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검토

관련 문헌, 선행연구, 보육실태조사 등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사전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여성 및 육아지원 관련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경과보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한 과정에서 참조하고자 한다.

나. 면담 조사

면담 조사는 농촌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여성농어업인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등 농촌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등 두 종류의 집단에 대한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 농촌 지역 영유아 부모 대상 표적집단면담(FGI) 실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농촌 양육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이용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FGI를 진행하였다. 총 4차례에 걸쳐 영아부모와 유아부모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제에 따라 먼저 서면 질문지를 전달하여 의견을 적어 회의 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국 각 다른 지역에서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지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회의별로 온라인 화상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참석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부서의 도움을 받아 전국 청년 마을 지정 지역과 농촌 청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아부모 8명, 유아부모 8명 등 총 18명의 부 또는 모를 면담할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 모집에 적극 관여한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농촌청년보금자리주택(충남서천, 전남고흥 등)” 거주자 단체, 농촌4H클럽, 전국여성농업인 단체 등 농촌 관련 단체들이다.

〈표 I-1-1〉 농촌 지역 영유아 부모 대상 FGI 실시

일정	참여자	지역
2023. 6. 16	영아 부모 3명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2023. 6. 16	유아 부모 4명	경기 안산시, 충북 괴산군, 경남 산청군
2023. 6. 26	영아 부모 5명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2023. 6. 27	유아 부모 4명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남 의령군

2) 농촌 지역 보육, 양육지원 사업 담당자 면담

농촌에서 영유아 및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관련자를 면담하고 농번기아이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보육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른 아침 보육을 위한 조기 영유아 보육센터 운영과 육아도우미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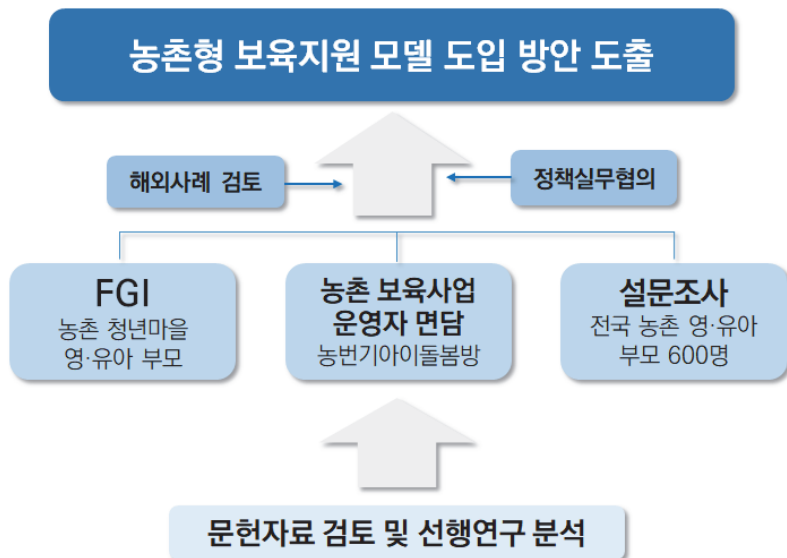
농촌 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여 양육의 어려움, 추가적 양육지원 필요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농촌 지역(읍 또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부 또는 모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과 대면 조사를 병합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총 600명 중 100명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부모를 포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표본 수를 확보하려 한 결과 온라인에 의한 자발적 참여자(주. 조사업체의 설문 참여 패널 pool 활용) 모집 방식으로는 농업인 모집이 어려워, 면접원들이 직접 농어촌 지역으로 파견되어 농업인 영유아 가정을 섭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즉, 500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 그리고 100명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영유아 부모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

농촌 영유아의 보육 개선에 관심을 두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촌 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보육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적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1-3-1] 연구 진행 과정도



II

농촌 영유아 양육의 특징

- 01 농촌 영유아 인구 변화
- 02 농촌 영유아 양육 가구의 특징
- 03 선행연구 검토: 농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제언 중심

II. 농촌 영유아 양육의 특징

본 장에서는 농촌의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기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농촌 영유아 양육 가구의 특성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영유아 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가구특성, 부모의 양육 특징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농촌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연구의 정책적 제안들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농촌 영유아 인구 변화

가. 영유아 인구의 감소

2013년 이래 지난 10년 간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인구(0~5세)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의 <표 II-1-1>에서 볼 수 있다. 2013년 농어촌 영유아 수는 206,356명이었으나 2014년부터 2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5만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22년의 경우 120,666명으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58.5%에 머물고 있어 지난 10년간 40% 이상의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기준 영유아 인구는 2013년 2,769,255명으로 10년 후인 2022년 1,791,788명까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0년 전 대비 64.7%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인구가 10년 간 급감했음이 사실이지만 농어촌의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영유아 수 대비 농어촌 영유아 인구 비율을 보면, 2013년 7.5%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율은 점차 떨어져 2020년 6.9%, 2022년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영유아 중 6.7%가 농어촌, 즉 군지역에 살고 있고 이 비율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어 농어촌에서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육아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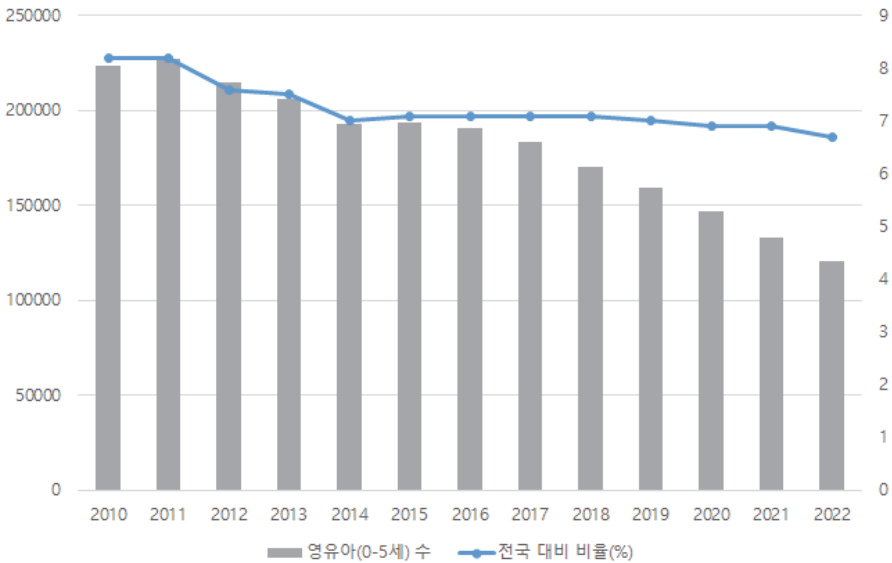
〈표 II-1-1〉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변화

단위: 명, %

연도	전국 영유아 인구	농어촌 영유아 인구	전국 대비 비율	농촌 영아 인구				농촌 유아 인구			
				소 계	0세	1세	2세	소 계	3세	4세	5세
2011	2,777,209	226,894	8.2	112,569	37,139	38,765	36,665	114,325	38,046	40,218	36,061
2012	2,816,103	214,622	7.6	107,352	35,294	36,034	36,024	107,270	34,213	35,459	37,598
2013	2,769,255	206,356	7.5	103,003	31,481	36,110	35,412	103,353	35,247	33,423	34,683
2014	2,741,835	193,197	7.0	94,653	29,751	30,822	34,080	98,544	33,482	33,440	31,622
2015	2,739,901	193,658	7.1	91,914	29,788	31,048	31,078	101,744	34,230	33,733	33,781
2016	2,680,088	190,792	7.1	90,984	28,594	31,256	31,134	99,808	31,252	34,565	33,991
2017	2,568,516	183,436	7.1	86,362	25,769	29,539	31,054	97,074	31,224	31,271	34,579
2018	2,415,349	170,571	7.1	78,473	23,397	26,258	28,818	92,098	30,479	30,723	30,896
2019	2,285,605	159,276	7.0	71,276	22,365	23,593	25,318	88,000	28,205	29,651	30,144
2020	2,121,390	147,005	6.9	65,074	19,787	22,395	22,892	81,931	24,837	27,644	29,450
2021	1,943,208	133,140	6.9	58,673	17,312	19,684	21,677	74,467	22,514	24,461	27,492
2022	1,791,788	120,666	6.7	52,781	15,884	17,648	19,322	67,885	21,382	22,278	24,22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각 연도)
1) ‘농어촌’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으로 한정함.

〔그림 II-1-1〕 연도별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전국 대비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각 연도).

나. 귀촌가구 및 다문화가정의 영향

농어촌으로 귀촌하는 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318,769가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 40% 정도가 40대 미만 가구주로 나타나고 있어 귀농·귀촌 가구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고려가 농어촌에서 필요한 수요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귀촌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하길 결정한 주요 요소로서 농촌 환경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놀이, 인공이 아닌 자연적 공간에서의 자율적 활동, 가족 간 여유로운 많은 시간의 공유 등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이들이 원하는 육아의 형태가 가능할 수 있는 농촌특화 프로그램, 돌봄 지원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I-1-2〉 가구주 연령별 귀촌 가구 수(2020-2022년)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39세	40-49세	계	30-39세	40-49세	계(A)	30-39세(B)	40-49세(C)	(B+C)/A
전국	345,205	78,110	61,122	363,397	79,057	61,304	318,769	67,130	51,603	37.2
부산	8,428	2,402	1,664	7,155	1,849	1,311	6,623	1,921	1,140	46.2
대구	9,017	2,859	1,565	9,396	2,742	1,672	7,985	2,477	1,322	47.6
인천	3,631	623	535	3,818	643	525	3,794	657	506	30.7
울산	7,011	1,654	1,214	7,320	1,704	1,157	6,488	1,622	1,014	40.6
세종	4,713	1,082	789	5,324	1,279	809	3,925	899	596	38.1
경기	101,527	24,089	19,038	11,386	26,014	19,552	85,174	18,749	13,885	38.4
강원	23,648	4,908	3,943	22,959	4,356	3,533	20,850	3,929	3,194	34.2
충북	23,706	5,459	3,609	24,116	5,193	3,430	22,718	4,723	3,086	34.4
충남	35,573	7,880	6,224	39,956	8,838	6,862	37,919	8,475	6,560	39.6
전북	14,887	2,588	2,509	14,737	2,390	2,383	15,105	2,486	2,375	32.2
전남	30,377	6,365	5,240	32,964	6,480	5,619	29,864	5,585	4,933	35.2
경북	38,373	8,261	6,315	40,278	8,156	6,429	36,745	6,972	5,505	34.0
경남	35,682	7,864	6,272	35,082	7,392	5,718	32,918	6,719	5,280	36.5
제주	8,632	2,076	2,205	8,906	2,021	2,304	8,661	1,916	2,207	47.6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인·귀촌인통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자녀의 연령 평균이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농촌에 어린 연령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졌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0-5세 영유아 연령층과 초등학교 연령의 경우는 도시와 비슷하

거나 오히려 농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또한 농촌 보육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서 포함되고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II-1-3〉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거주 비율

단위: %, 세

지역구분	다문화 가정 자녀 연령별 비율					평균 연령
	0-5세	6-11세	12-17세	18세 이상	계	
도시	31.2	35.3	19.3	14.2	100.0	10.23
농촌	30.1	41.6	20.8	7.5	100.0	9.1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표 II-1-4〉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대비 2022년은 30%가 증가된 9만 가구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율상으로는 매년 도시 대비 22%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다문화 가구의 영유아 및 초등 연령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과 교육적 환경의 제공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1-4〉 연도별 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구 수

단위: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299,241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도시	229,482	245,884	245,791	258,081	273,017	283,544	296,833	309,057
농촌	69,759	70,183	73,126	76,775	80,786	84,231	80,640	90,339
	(23.3)	(22.2)	(22.9)	(22.8)	(22.8)	(22.9)	(20.9)	(22.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다. 농촌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아 수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의 영유아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인구의 7%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영유아 중 농어촌 지역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24%, 15%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역 인구에 비해 교육·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표 II-1-5〉, 〈표 II-1-6〉). 물론 해당 지역의 기관들이 농어촌 아동만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통계들을 보더라도 농촌 지역 영유아는 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 학원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고 비교적 어린 연령부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에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본 보고서 p.19 참조).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 이용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 이외의 서비스, 즉 반일제 학원, 아이돌보미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거나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관 의존율이 높은 농촌에서의 양육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등원을 위한 버스 환승시스템 등 통학버스 이용 방식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의 양육 특징을 반영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II-1-5〉 전국 및 농촌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현황

명, %

구 분	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 국 (A)	1,476,686	343,104	108,825	43,619	654,154	226,994	4,401	95,589
	100.0	23.2	7.4	3.0	44.3	15.4	0.3	6.5
농 촌 (B)	359,259	59,099	56,304	19,165	173,315	32,387	935	18,054
	100.0	16.5	15.7	5.3	48.2	9.0	0.3	5.0
B/A	24.33	17.22	51.74	43.94	26.49	14.27	21.25	18.89

주: 2022.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통계 p.92 재구성

〈표 II-1-6〉 전국 및 농어촌 지역 유치원 취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설립유형별		
		국립	공립	사립
전국(A)	552,812 (100.0)	255 (0.05)	167,230 (30.3)	385,327 (69.7)
농촌(B)	85,580 (100.0)	160 (0.2)	38,927 (45.5)	46,493 (54.3)
B/A	15.5	62.8	23.3	12.1

주: 2022. 04.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대상별 통계.

2. 농촌 영유아 양육 가구의 특징

농촌 영유아 가구의 특징을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구 특성

1) 조부모 동거 비율의 저하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를 보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도시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 평균 정도인 8.6%만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조사인 2018년 실태조사와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표집이 달라졌음을 감안하더라도 농촌에서 영유아 가구의 가족구성이 달라지고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경우 조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귀농하기보다 이와는 무관하게 영유아 부모 자율적 지역 선택의 경우가 많은 것의 영향일 수 있고¹⁾ 조부모와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조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 과거 대비 영유아 자녀를 돌볼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2-1〉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가구)

구분	2021				2018	2015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읍·면	읍·면
조부모+부모+자녀	4.9	2.8	5.3	4.0	9.6	7.6
조부모+한부모+자녀	0.9	2.0	1.0	1.4	1.7	0.8
한조부모+부모+자녀	3.6	2.9	2.3	3.1	8.8	10.3
한조부모+한부모+자녀	0.3	0.2	-	0.2	2.0	2.4
소계	9.7	7.9	8.6	8.7	22.1	21.1
부부+자녀	88.7	90.2	87.4	89.1	73.6	77.4
어머니 한부모+자녀	1.1	1.6	4.1	1.8	1.7	0.6
아버지 한부모+자녀	0.5	0.2	-	0.3	0.9	0.2
(한)조부모+자녀	0.1	0.2	-	0.1	1.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41)	(952)	(407)	(2,500)	(805)	(750)

출처: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 85.

1) 본 연구에서 진행한 농어촌 청년마을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에서도 조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음. 본 보고서 4장 참조.

2) 부모의 낮은 연령과 학력 분포

농촌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연령 분포는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비해 20대 부모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대별 분포나 평균 연령에서 큰 차이를 찾기 힘들다. 다만 영유아 모의 경우 20대 연령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 분포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부나 모 모두에서 고졸 이하 또는 전문대 졸업 비율이 높고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II-2-2〉 영유아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단위: %(명), 세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2.7	3.9	4.3	3.4	6.1	8.6	10.4	7.8
30~34세	14.5	18.0	12.9	15.7	27.5	28.3	24.8	27.4
35~39세	39.7	36.6	40.5	38.5	43.0	40.6	41.7	41.8
40~44세	30.7	31.3	30.9	31.0	20.0	20.2	19.5	20.0
45세 이상	12.4	10.3	11.4	11.4	3.4	2.3	3.5	3.0
평균(표준편차)	38.8(4.9)	38.5(5.0)	38.9(5.3)	38.7(5.0)	36.3(4.5)	35.9(4.8)	36.0(5.0)	36.1(4.7)
학력								
중졸 이하	0.8	1.6	1.3	1.2	1.1	1.9	2.4	1.6
고졸	16.1	23.1	29.5	21.1	16.4	19.3	27.5	19.4
2/3년제 대졸	17.2	20.9	20.3	19.3	20.5	25.5	27.4	23.7
4년제 대졸	57.2	48.3	42.0	51.1	53.5	46.8	38.3	48.3
대학원 졸 이상	8.8	6.1	6.9	7.3	8.5	6.6	4.4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1,115)	(921)	(390)	(2,426)	(1,135)	(943)	(406)	(2,484)

출처: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87-88.

3) 가구 소득: 도시 대비 87.7%

농촌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평균 444만원으로 전국 평균 506만원에 비해 60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의 87.7%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도시에 비해 월 소득이 15.4%가 낮아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에 비해 낮은 물가와 사교육 비용 감소가 지출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그만큼 농촌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환경 부족의 인식은 높을 수도 있다. 한편 소득에서 월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수입 가구가 거의 40% 정도로 보이고 도시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가 현저히 적었다.

〈표 II-2-3〉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49만원 이하	4.6	4.6	9.8	5.4
250~299만원	5.6	4.2	6.5	5.2
300~349만원	13.6	12.0	15.1	13.2
350~399만원	7.3	11.2	10.5	9.5
400~499만원	17.6	21.0	15.4	18.7
500~599만원	19.5	19.5	23.8	20.1
600~699만원	9.1	10.7	8.1	9.6
700만원 이상	21.7	15.6	9.6	17.2
모름/무응답	1.0	1.2	1.2	1.1
계	100	100	100	100
(수)	(1,141)	(952)	(407)	(2,500)
평균	525.1	508.4	444.3	505.5
(표준편차)	263.5	299.8	221.9	275.3
F		7.9***		

출처: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112.

나. 모 취업 특성

1) 낮은 취업모 비율과 농림어업 종사 4.5%

농촌 거주 영유아 자녀 양육 부의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가 27.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대도시에 비해서는 10%p 정도 작은 수치이다. 서비스 종사자는 도시와 비슷한 비율이고 판매종사자 또한 중소도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율을 4.5%로 나타나 농촌에서 거주하지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영유아 가구는 5%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모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는 52.3%(미취업 47.7%)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으로 나타난 54.6%보다는 2.3%p 낮아 도시보다 일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의 약 5배이다.

〈표 II-2-4〉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관리자	7.2	7.7	8.8	7.7	0.9	1.5	2.1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19.0	16.1	18.8	13.5	14.9	8.6	13.4
사무 종사자	37.5	35.1	27.2	34.9	24.7	22.9	19.9	23.2
서비스 종사자	11.2	10.3	10.0	10.6	8.8	10.2	8.6	9.4
판매 종사자	7.8	4.4	4.4	5.8	3.2	1.9	4.2	2.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5	0.8	4.5	1.3	0.3	-	2.9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0	7.6	6.7	6.4	0.2	0.3	1.0	0.4
기계/장치 조작, 조립종사자	5.4	9.3	12.6	8.2	0.2	0.7	0.7	0.5
단순노무 종사자	2.1	3.3	4.3	2.9	0.8	1.3	4.1	1.5
군인	0.4	1.0	3.5	1.1	-	-	0.1	-
마취업	1.8	1.1	1.7	1.5	45.6	44.3	47.7	45.4
모름, 무응답	1.7	0.3	0.1	0.9	1.7	1.9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5)	(921)	(390)	(2,426)	(1128)	(940)	(406)	(2,474)

출처: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94.

2) 높은 재택 근무율

농촌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 근무형태를 보면, 도시에 비해 부나 모 모두에서 불규칙하게 출퇴근하거나 출퇴근하지 않고 가정을 기반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모의 7.6%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가정 내에서 담당해야 할 과업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 직업적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할 상황이 잦은 경우에 자녀 돌봄 인력 지원이 우선 필요함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2-5〉 취업 영유아 부모의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91.1	89.8	87.2	90.0	62.6	60.6	55.2	60.6
불규칙하게 출퇴근	6.5	7.3	7.4	7.0	9.6	12.3	13.2	11.3
출퇴근하지 않음	0.7	1.3	3.9	1.4	3.1	3.6	7.6	4.0
휴직 중	1.6	1.7	1.6	1.6	24.6	23.5	24.0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00)	(911)	(386)	(2,397)	(581)	(504)	(217)	(1,302)

출처: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 96.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 큰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경우 평일 근로 시간이 대도시에 비해 24분 정도 적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은 중소도시와 동일하였고 전체 평균 대비 6분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겠다.

〈표 II-2-6〉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 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 시간	(수)
전체	10시간 48분	46시간 24분	(2,270)	8시간 36분	38시간 0분	(945)
지역규모						
대도시	10시간 42분	46시간 6분	(1,049)	8시간 48분	38시간 0분	(421)
중소도시	10시간 54분	46시간 48분	(861)	8시간 36분	37시간 54분	(374)
읍·면	10시간 42분	46시간 24분	(360)	8시간 24분	37시간 54분	(150)

자료: 1)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 p. 97.

다. 자녀 돌봄과 기관 이용 현황

1) 높은 모 단독 육아 비율

낮 시간 동안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인력으로 농촌에서는 영유아의 모가 45.4%로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조부모인 경우는 2.9%로 대도시 대비 50% 수준이었다. 기관에 맡기는 비율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2-7〉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친인척	조부모	비혈연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전체	0.9	41.4	0.4	5.0	1.2	51.0	0.1	100.0(3,471)
지역규모								
대도시	0.9	38.0	0.6	6.2	1.5	52.7	0.2	100.0(1,565)
중소도시	0.9	43.1	0.4	4.8	0.8	50.0	-	100.0(1,324)
읍·면	1.1	45.4	0.1	2.9	0.8	49.3	-	100.0(582)

주: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131.

2) 이른 기관 이용 시작

농촌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보면 영유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일 때가 18.2%로 도시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평균 월령도 20.4개월이라 대도시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리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부모 등 육아 지원 인력이 가까이에 없고 모가 직접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 기관 이용 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2-8〉 지역에 따른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3.2	46.3	24.6	12.4	3.1	0.4	100.0(2,640)	21.8	10.8	
지역규모										
대도시	11.6	43.4	27.0	13.7	3.6	0.8	100.0(1,179)	22.8	11.0	
중소도시	12.7	48.4	23.8	12.3	2.7	-	100.0(1,020)	21.5	10.4	9.1***
읍·면	18.2	48.2	20.6	9.5	3.1	0.4	100.0(441)	20.4	10.8	

주: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p.182-183.

3) 높은 어린이집 이용률

농촌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유치원이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맞물린다. 유치원의 경우 농촌에는 도시에 비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은 높을 것이나 사립유치원 수가 매우 부족하고 영어학원 등 반일제 학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높은 결과일 수도 있다. 농촌 영유아부모의 간담회 결과(본 보고서 4장 참조)를 보면 자녀의 교육적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접근성이 낮은 것이 여기에 작용된 결과일 것이다.

〈표 II-2-9〉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계(수)	$\chi^2(df)$
전체	63.2	33.3	3.6	100.0(2,591)	
지역규모					
대도시	60.5	33.9	5.6	100.0(1,158)	21.6(4)***
중소도시	64.3	33.2	2.5	100.0(1,002)	
읍·면	66.9	31.8	1.2	100.0(431)	

주: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188-189, 〈표 V-3-1〉.

4) 낮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

농어촌에서는 정부의 양육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도시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70%에 달하여, 해당 센터가 농어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도 매우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에 대한 확충이 농어촌에 더 집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I-2-10〉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chi^2(df)$
전체	38.4	61.6	100.0(2,500)	
지역규모				
대도시	43.4	56.6	100.0(1,141)	34.0(2)***
중소도시	36.5	63.5	100.0(952)	
읍면지역	30.5	69.5	100.0(407)	

주: 김은설 외(2021a).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160, 〈표 IV-2-12〉.

3. 선행연구 검토: 농촌 지역 육아지원 정책 제언 중심

최근 10년 간 농촌 지역의 영유아 양육과 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 중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아 환경을 분석하고 농촌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몇몇 연구들의 주요 제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농촌 맞춤형 보육 방안 연구²⁾

김은설 외(2021b)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 맞춤형 보육 방안을 (1) 가정양육지원, (2) 시설지원, (3) 지역사회 양육환경 개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우선 (1) 가정양육지원 영역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형 영아돌보미”**가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아동이 돌보미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시에 비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각종 비용 부담이 큰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거리 지역에 파견되는 돌보미의 경우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영아 부모를 위한 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인 **“농촌형 함께육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란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으로, 핵가족화에 따라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0: 2).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함으로써 고립감, 소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마련되어 있는 기존의 형태보다는 농촌의 실정에 맞추어 빈농가를 육아나눔터로 개조하고 주민자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집합형 이동식 놀이교실”**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동식 놀이교실이란 어린이집이 원거리에 있는 면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가구를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 놀이 방법 시연, 육아 관련 부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보육 사업이다. 김은설 외(2021b)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용의 내실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농촌 지역 내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소수의 영유아를 모아 일정 시간 교사가 방문하는 놀이교실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정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제도인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안을 제안하였다. 영아의

2) 본 절은 김은설·김나영·김지현·이경아(2021).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의 pp.135-154 정책제언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며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제보육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보고 면지역의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간제 보육반 운영 유도를 제안하였다.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미설치 면지역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있는 건물의 임대나 매매를 통해 시간제 보육반의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은 사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2) 시설지원 방안을 보면, 첫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농촌형 차량 운영 모델과 작은도서관(거점센터) 활용을 제시하였다. **“농촌형 차량 운영 모델”**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량 운행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먼 거리에 있는 면과 시설 사이에 경유지를 두어 경유지까지는 지자체가 차량을 운행하고 경유지에서 시설까지는 기관 차량이 운행하는 **“중간 환승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작은 도서관 활용”** 방안은, 유치원 하원 후 돌봄 연장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유치원 차량을 이용하여 집과 기관 중간에 있는 작은 도서관(거점센터)으로 이동하여,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머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시설 질적 수준 제고 목적의 자연친화 또는 숲 어린이집 설치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교사 교통비 지원을 제안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자연친화적 농촌형 어린이집 등을 설립하는 초기 비용과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농촌 보육교사특별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외에도 월 교통비 또는 자가 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보조 지원의 추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비용 지원의 측면에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유도와 농촌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제안하였다. 농촌 지역은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기에 민간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으로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면단위부터 시험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3) 지역사회 양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거점형 초등돌봄센터의 확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돌봄센터까지 추가 차량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다문화 영유아 및 귀농·귀촌 가정, 장애아 가정을 위해 방문 지원 서비스 확충,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 보호 및 지원을 농촌 보육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 도농복합지역 교육·보육 시설 개선 방안 연구³⁾

김은설 외(2018)는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을 위한 교육·보육 시설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을 위한 거점형 시설 운영을 제안하였다. 도농복합시 영유아 부모 중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 중 일부를 지정하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거점형으로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유아는 하원 시간에 기존 소속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직영으로 저녁 돌봄을 위한 영유아 보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 스테이션은 안전,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오후에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한데 모아 보육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담당 교사, 교재교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 유치원의 증설,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및 이용시간 확대를 제안하였다. 교육을 위한 양질의 환경 및 프로그램 제공의 측면에서도 적정 규모의 병설로의 통합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병설이 단설유치원을 흡수하고, 장애영유아 교육 등 공립의 역할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주거비 일부 지원,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농어촌 교사 수당 인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과후 돌봄 자리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맞는 돌봄교실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인 ‘육아광장’을 설치하여 육아정보 교환, 부모상담 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 등의 기능을 하는 공공 키즈카페로서의 활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 소아과를 도농복합지역에 개원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를 지원, 응급 의료처치를 위한 핫라인 설치, 부모 대상 정서 치유 프로그램 개설 등 의료서비스 확충을 제안하고,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

3) 본 절은 김은설·김지현·이재화·김혜진·안석(2018).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의 정책제언 부분을 요약하여 실음.

역 도서관의 활용성 강화도 언급하였다.

다. 농어촌 유형에 따른 육아 지원 방안⁴⁾

김은설 외(2015)는 농어촌 유형별(인구감소 낙후지역, 농업농촌 중심지역, 도시농촌 혼합지역) 육아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우선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인구감소 낙후 지역’의 경우 혼합연령반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누리과정을 위한 교사를 별도로 투입하여 혼합연령반에서도 연령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인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동일 연령의 유아들을 한 곳에 모아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집단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인력지원을 통해 급간식을 조달하는 방안, 공립단설유치원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특수 교사 접근성 확보, 조손 가정의 영유아 등록, 관리 및 개별 지원, 교육청과 지자체의 특별활동 강사풀 구성, 영아 전담 국공립 소규모 시설, 아이돌보미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농업중심 농촌 지역’의 경우 야간돌봄 및 휴일보육을 확충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높은 취업모 비율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 지원 인력의 자격 및 학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한 보조인력 채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교사 교통비 및 체류비 등을 지원할 것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유형인 ‘도시농촌혼합·인구 유입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 육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가정 지원 센터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접근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센터)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센터 비율이 낮아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차량운행 확충,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추가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해 상호 사업적 연계를 할 것을 제시하였다.

4) 본 절은 김은설, 윤재석, 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의 정책제언 부분을 요약하여 실음.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원을 설치함으로써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중심으로 설치되어 면지역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을 기존 시설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III

농촌 지역 보육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 01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정책 사업
- 02 긴급·일시 보육 국내 유관 정책 사례
- 03 호주와 일본의 농촌 및 긴급·일시 보육 정책
- 04 소결

Ⅲ. 농촌 지역 보육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제3장에서는 농촌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보육지원 모델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지역에 특화된 보육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농촌의 보육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유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업을 함께 살펴보았다.

1.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정책 사업⁵⁾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을 지원하고, 농번기의 주말노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파견되는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2년에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2013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에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2년에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23a: 1), 2027년까지 123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3e: 2).

5)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정책 사업을 개관하였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4).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와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로 지원 기준이 구분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4). 전자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 지역이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당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2023년부터 3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읍면지역에 한 곳만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운영비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2-4).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는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 지역 또는 도서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 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5).

2) 지원내용 및 사용한도

시설비는 개소 당 3~15인 이하 보육시설은 최대 15,200만원, 16~20인 이하 보육시설은 추가로 30%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비 50%로 지방비 50%)(농림축산식품부, 2023a: 5, 14). 해당 비용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신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냉·난방비(시설·운영 전기료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5).

운영비는 개소당 최대 1,370만원이며(국비 50%로 지방비 50%),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신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5).

3) 보육시간과 운영기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만 0~5세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을 운영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2).

지역내 수급 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으나,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1).

센터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장은 보육정원이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1).

한편 영유아가 3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분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농림축산식품부, 2023a: 12), 분원 형태로 지정한 경우는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III-1-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 운영에 대한 보육교직원 책임 및 업무내용

◇ 본원원장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 취사부 및 보육보조 인력의 임명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및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시행 지침서. p. 12.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으로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분원 운영에 대한 책임 및

업무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명료화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2).

나. 이동식 놀이교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가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6).

1)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 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 지역을 지원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지원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6).

2) 지원내용 및 사용한도

운영비는 개소 당 최대 15,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며, 해당 비용은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6).

3) 운영 방법 및 내용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거점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토록 하고 있다.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1) 놀이감 및 도서 대여, 2)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6).

4)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보육전문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하며,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고,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 상담을 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16).

[그림 III-1-2]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년도 8~9월	▶ 신청·접수계획 통보(농식품부) → 접수결과 농식품부 제출(시도)
② 대상자 선정	전년도 10월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③ 지침 통보	1월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④ 사업추진	연중	▶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어린이집 등)
⑤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시군) ▶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지도(시도)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도):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⑦ 사후관리	설치 후 5~10년	▶ 사후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시행 지침서. p. 7.

한편 이상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은 위의 [그림 III-1-2]의 절차와 같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a: 7).

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여성농어업

인육성법」제11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를 근거로 국비 100%로 지원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b: 1).

사업대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이며, 농촌 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지원한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m² 이상이어야 하며(영유아 1인당 2.64m² 이상), 시설은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한다(필요 시 시설유지계약 체결)(농림축산식품부, 2023b: 4).

시설비는 시설 당 2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이 가능하다.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최대 26백만원 내외 지원하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23b: 4).

아이돌봄방의 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한 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또는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돌보미 등을 활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b: 11).

라. 유관 사업: 영농활동 지원

1)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및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고, 이들에게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국고 70%(58,800원/일)와 이용 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이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 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c: 1-3).

2)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세탁, 청소, 목욕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촌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다. 국고 70%(13,300원/일), 농협 30%(5,700원/일)로 지원되며,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필요 취약가구 선정 또는 해당 가구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d: 1-2).

2. 긴급·일시 보육 국내 유관 정책 사례

농촌 지역은 시설 위주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정으로 돌봄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일시 보육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봄공동체적 접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농촌 보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방정부의 돌보미 파견 지원 사업 등의 유관 정책 사업 사례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아이돌봄지원사업⁶⁾

1)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며,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자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여성

6) 여성가족부의 긴급일시 돌봄을 포함한 보육 지원 정책 사업임.

가족부, 2023a: 9-1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은 4가지(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 이외에 가사를 병행하는 종합형으로 구분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여성가족부, 2023a: 9,12).

기본 이용시간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3a: 10).

2) 비용지원 및 중복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a: 19-20).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가 11,080원, 시간제 기본형이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이 13,290원, 기관연계가 18,480원이다(여성가족부, 2023a: 10).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기(既) 이용 시간 내 시간제 서비스 돌봄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신청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보미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된다(여성가족부, 2023a: 53).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시간~200시간 이내이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이내이며, 이 또한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과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을 이용가정이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3a: 5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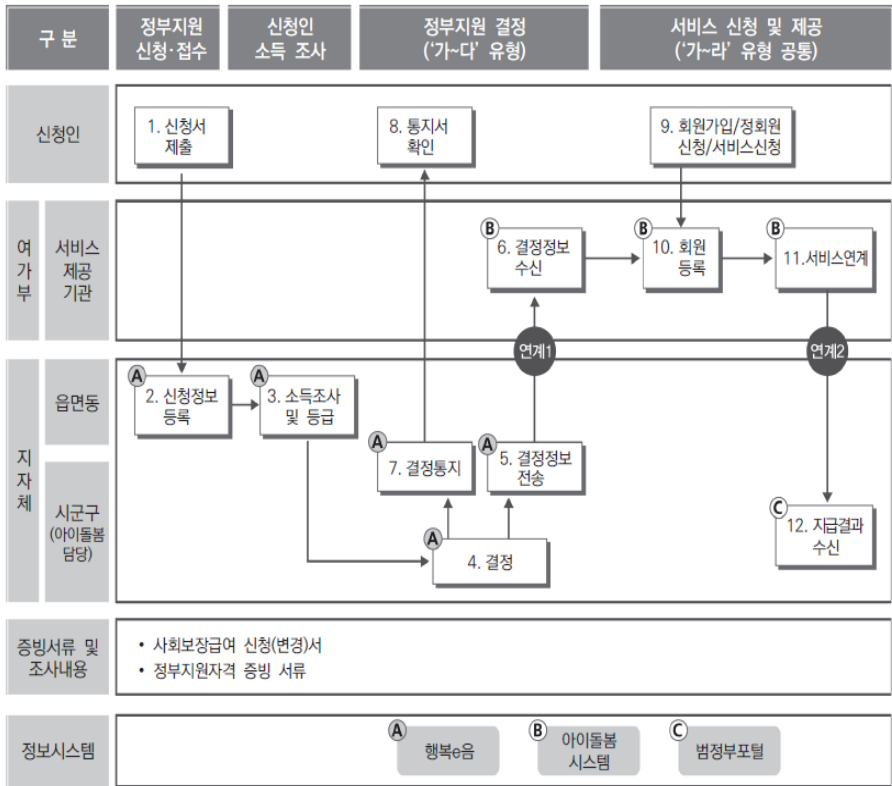
서비스 취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취소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미에게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23a: 51).

한편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은 보육시설 기준 평일 09~16시, 유치원 기준 평일 09~13시이다. 단,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이 미운영하는 경우, 아동의 병원치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여성가족부, 2023a: 32-33).

3)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인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홈페이지 상 정회원 신청)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등록 처리를 하고,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명단을 서비스제공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여성가족부, 2023a: 13-14).

[그림 III-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도



자료: 여성가족부(2023a).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4.

4)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정부지원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하였으며 매년 보수교육 이수, 건강진단서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다(여성가족부, 2023a).

(가)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선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아이돌보미 신청자

는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관련 자격증 사본, 그리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면접심사 통과 후에는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3a: 69-70).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는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담당한다. 신청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및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여성가족부, 2023a: 69-70).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는 모집 기관에서 다음의 2가지 중에 선택하여 운영한다. 첫 번째 절차는 신청→서류심사→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결격사유 조회→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근로계약체결(매년 보수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다. 두 번째 절차는 신청→서류심사→양성교육→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결격사유 조회→현장실습 수료→근로계약체결→돌봄 활동(매년 보수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다. 인·적성검사는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활용한다(여성가족부, 2023a: 69).

(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관은 시·도 지정 교육기관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다.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서는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양성 필수과목 연계과정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 집합교육 실시가 원칙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온라인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의 교육비는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는 2만원(현장실습비)이다. 교육비 환급은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된다(여성가족부, 2023a: 73-74).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과정(80시간)과 현장실습(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현장실습 기준 양성교육 대상자는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양성교육 이론과정(80시간)을 받지 않아도 활동이 가능한 자격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는 보수교육(16시간)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 자체판단)을 이수한 후 활동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a: 73-74).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법정 휴가·휴직자 포함)로서 수시로 실시되는 면접심사 통과자가 그 대상이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정지된다(여성가족부, 2023a: 74-75).

보수교육은 양성교육기관에서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파견, 교육운영, 교육생 중식(비) 제공(1만원 이내)된다. 교육 장소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한다. 교육시간은 기본과정(8시간)과 특화과정(8시간)으로 총 16시간이며, 여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이 포함된다. 온라인 또는 원격교육 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관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여성가족부, 2023a: 74-75).

(다) 아이돌보미 활동 및 직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아이돌보미의 주요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성범죄 등 신고의무 등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활동의 범위 및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비롯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 이루어진다. 또한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한다(여성가족부, 2023a: 53,78).

시간제 서비스(기본형)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다.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가 포함된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3a: 54-55). 다음으로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3a: 56).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한다. 이때,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하며,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23a: 58).

(라) 활동수당

아이돌보미의 기본 시급은 9,630원이다.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에 따라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3,3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2,890원, 기관연계서비스는 7,220원이 가산되며, 아동 수 추가에 따라서는 (2명 기준) 4,815원, (3명 기준) 9,63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여성가족부, 2023a: 82).

또한 다음의 경우에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데, 이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없다.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3Km 이상 6Km 미만 이동 시 4천원, 편도 6Km 이상 10Km 미만 이동 시 6천원, 편도 10Km 이상 이동 시 1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 기피 지역(지리 여건, 교통 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3a: 83).

(마) 아이돌보미 활동 및 자격 정지

아이돌보미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활동이 정지된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둘째,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셋째,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각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넷째,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옷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 조치 대상), 다섯째,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여섯째,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이다. 활동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하로 결정된다. 활동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활동정지가 해제되어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후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이수하여야 서비스 연계가 재개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3a: 84-85).

다음으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3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아이를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 3)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둘째,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셋째,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이다. 첫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을 무조건 정지시킨다(여성가족부, 2023a: 86-87).

5) 사업 추진체계

읍·면·동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지원유형은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결정된다.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한다(여성가족부, 2023a: 13). 시·군·구 담당자는 지원유형을 최종 결정하고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용자-아이돌보미 간에 이루어진다. 계약을 통해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를 밟는 데,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가 가능하다.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을 알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비스의 연계를 결정한다(여성가족부, 2023a: 53).

(가) 서비스제공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주요 역할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관리, 근로계약 체결 및 아이돌보미 등록, 활동수당 지급, 보험 가입,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등 징계, 그리고 아이돌보미 DB 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이다(여가부, 2023a: 92,99).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연계 계획을 연간, 분기별, 월별로 작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청 서비스 대비 아이돌보미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연계를 못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이하 A 기관)은 인근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하 B 기관)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사고 관리와 관련하여 전담인력-부모(보호자)-아이돌보미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그 외 이용자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3a: 99-103).

[그림 III-2-2]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추진주체		기능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감독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시·도	사업 관리	- 아이돌봄미 교육기관 및 광역지원센터 (재)지정·관리 - 아이돌봄미 보수교육 운영 및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 예산지원, 사업량 조정, 사업 관리 감독 - 사회 서비스 관련 예산·인원 보고
시·군·구	사업 운영 관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 가정 양육지원 중복지 여부 및 지원 연장 여부 등 결정 (법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타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관리·보고 -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관리 감독(합동 점검) - 예산집행 및 실적보고, 홍보 등, 사업평가
읍·면·동	정부지원 접수	서비스 안내, 정부지원 신청 접수 및 유형 결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처리 - 아이돌봄미 모집·등록 및 근로계약 체결 - 이용자와 아이돌봄미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아이돌봄미 복무 및 처우 관리, 이용자 관리 - 사업 실적 보고
교육기관	교육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수행
광역지원센터	사업지원	지역 내 아이돌봄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및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등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등 (향후 운영매뉴얼 배포 예정)
중앙지원센터	사업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아이돌봄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아이돌봄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 아이돌봄미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육아도우미 산원확인 증명서 발급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3a).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91.

(나)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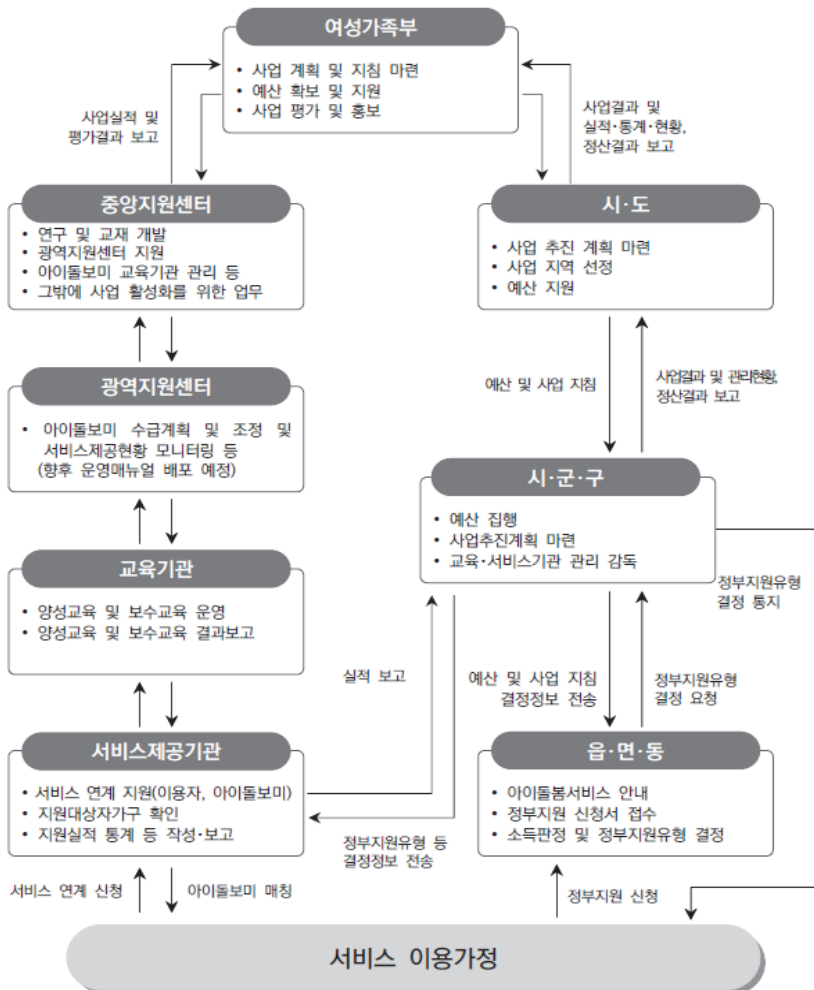
시·도지사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교육기관은 아이돌봄미 수급조정 계획 등에 따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 등에서 교육훈련 추가 수요가 많음을 이유로

추가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a:108).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한다. 양성교육 운영비는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80시간, 30인 이내 운영 권고)하고,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16시간, 50인 이내 운영 권고)한다(여성가족부, 2023a: 112).

[그림 III-2-3]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자료: 여성가족부(2023a).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4.

(다) 지원기관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제공기관과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아이돌보미 근로계약·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3a: 114).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수요에 대응한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연계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화 등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원 등 지역 내 총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3a: 115).

6) 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은 28가지로 공개되어 있다. 서비스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에 따라 1개월 제한, 3개월 이내 제한, 6개월 이내 제한, 1년 이내 제한, 그리고 기타로 나뉜다(여성가족부, 2023a: 62-63, 195).

1년 이내 이용제한의 사유로는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돌봄 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외에 미납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된다(여성가족부, 2023a: 62-63, 195).

7) 사업예산 집행

예산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비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와 광역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2개의 내역을 사업별로 집행한다. 기준 보조율(국비)은 서울 30%, 기타 시·도가 70%이다(여성가족부, 2023a: 119).

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⁷⁾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층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조부모 등 친인척 또는 이웃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과의 소통과 이웃 간의 품앗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운영원칙과 사업내용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하고자 지원한다.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규정된다(여성가족부, 2023c: 5).

공동육아나눔터는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가 이용하며, 보편적인 이용과 더불어 주민자치와 공동체성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부모는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이고, 사업 수행기관은 부모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돌봄 방식 및 내용은 부모 공동체(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공동체 방식(품앗이 돌봄)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c: 6).

주요 사업은 1) 공간 제공, 2) 프로그램 운영, 3) 공동육아 지원, 4) 놀이활동 지원이다. 즉,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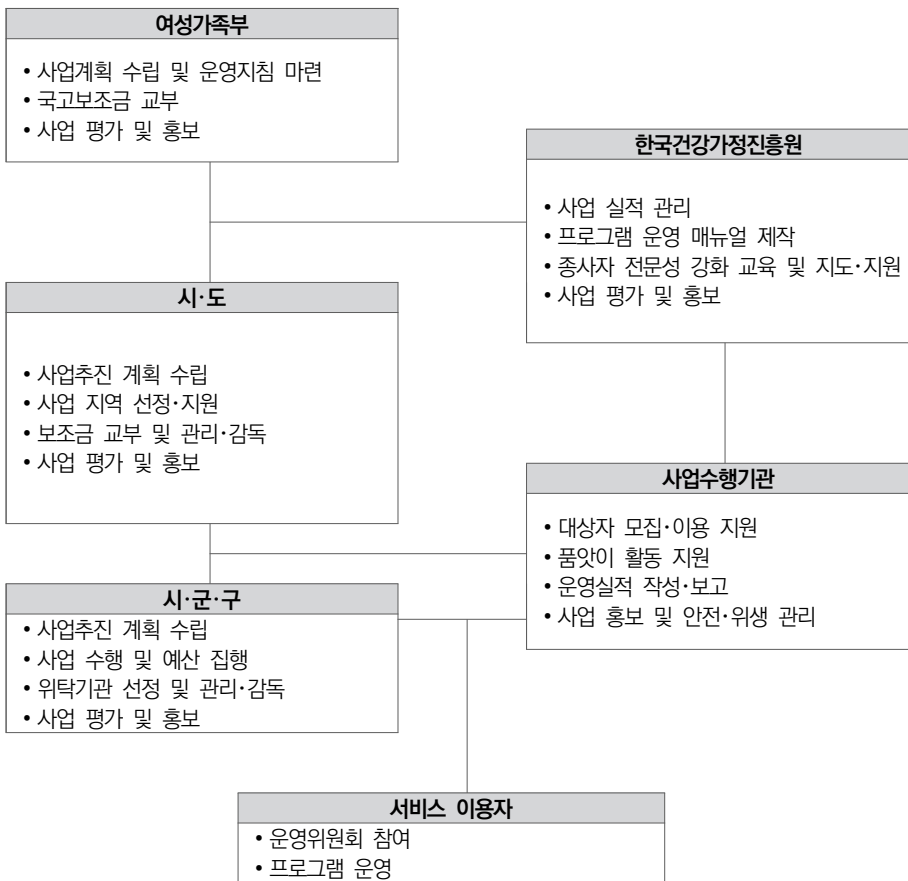
7)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 정책 사업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2023.

8. 7. 검색)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4)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3c: 6).

[그림 III-2-4]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p. 7.

2) 공간 발굴 및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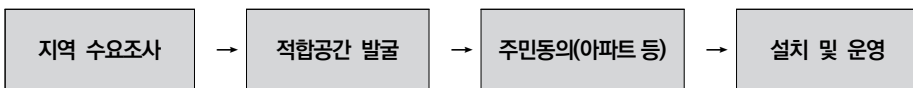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하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고,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 시설의 경

우 야외활동 공간이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c: 9).

활용 가능한 공간은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공공·민간 유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주거지 내 등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공간이다(여성가족부, 2023c : 11).

또한 공간의 사용시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민간시설 등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시설유지 계약 체결).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c: 10).

[그림 III-2-5]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설치 과정



자료: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p. 10.

센터의 설치비용은 지방비 편성 또는 민간 지원으로 마련하되,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전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요조사 시에 각 지자체는 신규·이전 설치 또는 노후시설 리모델링 수요를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c: 13).

3) 비용지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지원은 2019년부터 시·군·구별에서 ‘개소별’ 지원으로 변경되어 2023년 기준으로 개소별 55,194천원(추가 관리인력 인건비, 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2인 이상 배치 시 교대 근무 가능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 기준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c: 26).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활동 지원, 교육, 홍보, 장난감·도서 구입 등에

지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당은 1인당 일 2만원 이내로 지급(교통비 및 식비)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c: 26).

4) 운영관리 사항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상시 개방(휴게 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맞벌이가 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운영 권장(주말 운영 시 평일 휴무 가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c: 16).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원,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주체는 참여 부모이며, 사업담당자는 운영을 지원한다. 주 2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 강사 섭외가 어렵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주 1회를 운영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c: 16). 지역 및 해당기관 내 돌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즉, 돌봄공동체 운영 시 상호 프로그램 협력 및 돌봄공간 활용 지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여성가족부, 2023c: 16).

다.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방정부의 사업은 일시적이거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틈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서울 서초구의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과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서울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서비스

가)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서울시는 1) 등하원, 2) 아픈 아이, 3)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은 10개 자치구에서, 영

아 돌봄은 전체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족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 등하원 돌봄은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 등원(7~10시, 3시간)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4시간)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단시간 돌봄 활동 기피에 대한 문제점은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고, 단시간 돌봄 시 시급을 상향(2시간 돌봄 시 기본시급+시간당 1,000원)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단시간 돌봄에 대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6679에서 2023. 7. 10. 인출).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단순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고 진료비는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아픈 아이돌봄 서비스는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성동·동대문·강북·강서·서초구 5개 자치구 내의 아픈 아이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과 진료, 진료비 수납, 약 구매,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고민을 덜어준다.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영아돌보미는 영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전문역량을 위한 교육을 1일 8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영아 돌봄 경력이 풍부하고 돌봄 능력이 뛰어난 전담 돌보미를 지정하여 영아에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돌봄은 2022년에 서울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담 돌보미도 26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했으며 2025년에는 1,000명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나) 비용지원

구체적인 돌봄서비스 종류는 1)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2) 영아종일제, 3) 질병

감염아동지원, 4) 기관연계로 구분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대상연령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이다. 기본형의 기본 이용료는 11,080원/시간, 종합형의 기본 이용료는 14,400원/시간이다. 시간제 서비스는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 보조를 맡는다. 종합형의 경우만 아동 관련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이용료는 11,080원/시간이다. 영아종일제는 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이용료는 13,290원/시간이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진행한다. 기관연계는 만0세~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이용료는 18,480원/시간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의 아이돌봄 보조를 진행한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6679에서 2023. 7. 10. 인출).

이용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료의 15~85% 차등 지원한다.

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의 이용 비용과 방법은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रो에 신청하고 결정 통지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치구 가족센터 등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해당 상황에 맞는 전담 돌보미를 소개해주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활동에 참여한 전담 돌보미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활동한 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6679에서 2023. 7. 10. 인출).

2) 서울 서초구: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서울 서초구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과 서초119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서초 아이돌보미는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한 자녀(맞벌이) 이상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월 50시간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 단, 한 자녀(맞벌이)부터 지원되며 돌봄 자녀가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여야 한다. 해당 가정에 막내 아이 기준으로 월 50시간의 아이돌봄(세 자녀 이상 중 막내 자녀 쌍둥이는 월 70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서초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단, 이용가정은 아이돌보미 교통비를 1회 기준으로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는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안전 신변 보호 등의 활동을 하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서울 서초구 홈페이지,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에서 2023. 8. 1. 인출).

서초 손주돌보미는 서초구 1년 이상(최근 1년 사이 연속 거주) 거주 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이때 자녀가 만1개월 이상~24개월 이하여야 한다.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조부모는 손주돌보미 교육 신청 서류접수 전까지 서초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으면 된다.

서비스는 연중 06~22시 사이에 이용 가능하다. 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월 40시간, 최대 30만원 지원 손주돌보미 지원금을 지급한다. 쌍둥이의 경우 월 80시간(60만원) 지원한다(서초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나) 비용 지원 및 중복지원 기준

서초 아이돌보미는 월 5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이용가정 부담액: 돌보미 교통비 3,000원/1일 기준)을 지원한다. 1일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월 50시간은 구비로 지원되며, 지원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자부담하며 월 최대 10시간 가능하다. 시간당 할증요금은 다음과 같다. 아동 수가 1명일 때에는 심야·주말⁸⁾에 대해서 2,100원이 추가된다. 아동 수가 2명일 때는 기본 3,600원이 추가되고, 심야·주말에는 5,100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아동 수가 3명일 때는 기본 8,600원

8) 심야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를 의미하며, 주말은 토, 일, 법정공휴일을 의미한다.

이 추가되고, 심야·주말에는 9,600원이 추가된다(서초구 가족센터_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표 III-2-1〉 서초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이용요금(시간당)			돌보미 교통비 1회 3,000원 이용가정 부담
이용단가	구비지원	본인 부담	
10,000원	10,000원	0원	
※ 월 50시간 구비지원 지원시간 초과 시 10,000원 자부담(최대 10시간)			
활증요금(시간당)			
아동수	기본	심야, 주말	
1명	0원	2,100원	
2명	3,600원	5,100원	
3명	8,600원	9,600원	

자료: 서초구 가족센터_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 2023. 8. 2. 인출)

서초 손주돌보미는 손주돌봄 활동수당을 지원(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 지원금 지원)한다. 조부모 중 1명만 교육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서초 아이돌보미와 서초 손주돌보미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서초 아이돌봄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초구 가족센터_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서초 아이돌보미 및 손주돌보미는 서초구 가족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서초 아이돌보미 서초 손주아이돌보미 사이트)으로 제출서류를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리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양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인 경우)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족센터에서는 이들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이용가정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

하며, 가족센터는 교통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이돌보미를 이용가정으로 파견하며 서비스 실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며, 모니터링은 서초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III-2-6] 서울 서초구 아이돌보미 및 손주 아이돌보미 신청 및 이용절차



자료: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s://www.seochog.go.kr/site/seochog/04/10402010302002015070605.jsp> 에서 2023. 7. 7. 인출.

라) 서초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양성 및 관리

서초 손주돌보미는 이용가정에서 전화로 접수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후 양성교육 신청 서류제출을 이용가정에서 제출한 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이용가정이 서초 손주돌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족센터 담당자가 접수하여 서비스를 연계한다. 센터는 모니터링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초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6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 교육과정은 사업안내 1시간, 영유아 이론 4시간, 영유아 신체발달 5시간, 기본소양 3시간, 영유아 이유식, 응급처치, 의약품, 인지정서발달 놀이 관련 12시간, 영유아 정서발달 7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해 12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심화 12시간, 그리고 아동기 이해 3시간, 그리고 돌보미 활동 수칙에 대한 교육 1시간으로 총 23 과목으로 구성된다(서울 서초구 가족센터, 2023, 내부자료).

[그림 III-2-7] 서울 서초구 아이돌보미 및 손주 아이돌보미 신청 및 이용절차



자료: 서초 가족센터_ 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 2023. 8. 2).

서초 손주돌보미는 손주돌보미 교육과정 25시간 이수한 조부모여야 한다. 서초 손주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은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은 필수과목 9과목 20시간과 선택과목 4과목 중 2과목 4시간을 이수하여, 총 11과목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은 영아발달 이해,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우리아이 약 먹이기,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영유아 인권, 베이비 마사지, 그리고 유아음악 및 손유희이다. 선택과목은 위생관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인성지도 및 성교육, 그리고 동화구연이다. 돌보미의 역할과 사업추진체계는 서초구 아이돌보미와 동일하다(서울 서초구 가족센터, 2023, 내부자료).

3) 서울 서초구: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서초 119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질병, 입원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초구 거주 중인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365일 08시~22시 내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등·하원 지원과 시간제 일시 보호이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월 6회 이용 가능하며, 연속이용은 최대 3일이다. 1일 최소 2시간~최대 8시간 가능하

다. 서비스 이용 3일 전~최소 1일 전까지 서비스 신청 및 교통비를 입금해야 한다. 단, 일요일 이용 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해야 한다(서초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나) 비용 지원 및 중복지원 기준

서초 119 아이돌보미의 이용 일정(동일 시간대)에는 손주돌보미, 서초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일정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당일 취소 시 교통비 환급은 불가하다.

기본요금은 시간당 구비지원 10,000원이다. 1일 4시간까지 지원되며 4시간 초과 시 본인 부담 10,000원이 발생한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교통비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돌봄아동 당 요금을 살펴보면, 2명은 시간당 3,600원이 추가되며, 3명은 시간당 8,600원이 추가된다. 주말은 시간당 2,100원이 추가된다(서초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서초 119 아이돌보미는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에 이용가정에서 서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한다. 가족센터 담당자가 승인한 후, 이용가정에서 서비스 일정을 등록하고 연계요청 전화를 하며 센터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최종적으로 이용가정이 교통비를 입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초 가족센터_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에서, 2023. 8. 2. 인출).

3. 호주와 일본의 농촌 및 긴급일시 보육 정책

일반적인 보육교육 시설 서비스가 아닌, 긴급하거나 일시적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면, 호주의 가정 내 보육(In-home-care: IHC)제도와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를 참조할 수 있다.

가. 호주의 ‘가정 내 보육(IHC)’⁹⁾

가정 내 보육(In Home Care: IHC)은 교육자(educator)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대안적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일반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족에게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모의 일반적이지 않은 비표준적 또는 가변적인 근무 시간
- 농어촌 등 지리적 거리로 인해 일반적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에는 총 3,200개의 IHC 센터가 있고 IHC는 보육 관련 법령에 포함된 공식적 제도로, 정부가 승인한 센터에서만 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있다.

IHC 센터에서는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3-1] 호주 IHC 서비스 이용 절차



IHC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자인 ‘교육자’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최소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IHC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교육자들은 IHC 지원 기관과 가족이 합의한 가족 관리 계획을 기반으로 맞춤형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 1인당 주당 35시간의 보육 지원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동당 2주간 최대 100시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당 \$37.34/h(호주달러)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5명의 아동을 한 교육자가 한 가정 내에서 담당할 수 있다.

IHC를 사용하는 가족은 IHC 지원 기관에 상황 변경 사항을 알려서 해당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육시설로 서비스 전환을 안내받도록 해야 한다.

9) 호주 정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bout-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australia/approved-care-types/home-care> 2023년 10월 3일 인출

나. 일본 ‘가족 지원(패밀리 서포트)’¹⁰⁾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는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를 받은 지역 주민이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의 거주지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역 패밀리 센터에 육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패밀리 회원으로 신청을 하고 육아지원 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서포트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상호원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포트 회원(도우미)은 긴급한 경우의 돌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의 도움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

서포트 회원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될 수 있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3일간 일일 3시간씩 총 9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지자체 관할의 교육장소와 소방서에서 다음의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III-3-2]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도우미 교육 시간과 내용

1일째 (3시간)
설명회, 양성 강습회(패밀리 서포트 사업의 이해와 보육의 이해)
=> 아이 손 장난감 만들기 등

2일째 (3시간)
양성 강습회 (신체 발육과 병, 소아 간호의 기초 지식)

3일째(3시간) => 소방서
구명 구급 (심폐소생술 실시 & 긴급상황 시뮬레이션)

출처: 네이버 블로그 -치비코 일본에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수료

이용료는 시간당 600엔~700엔이고 기타 아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2명째부터 반액이 되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는 30분 이하는 반액, 30분을 넘어 1시간까지는,

10) 일본 <http://anju-maman.jp/family-support/> 와 <https://blog.naver.com/alchon/222291562571> 에서 내용 인용. 2023년 10월 3일 인출

아래 금액이 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포트 회원의 가정에서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밀리 회원이 실비로 보상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표 III-3-1〉 일본 패밀리 서포트 이용 비용

패밀리 서포트 이용료	
평일 8:00~18:00	1시간 600엔
이른 아침 (8:00 이전), 야간 (18:00 이후)	1시간 700엔
식사나 우유·기저귀 등의 실비	서비스 이용 회원이 준비
교통비 버스, 택시, 전철 요금	서비스 이용 회원 부담. (자가용차는 10km100엔)

자료: 일본 안주마만 홈페이지, <http://anju-maman.jp/family-support/>(2023.10.3. 인출)

원칙적으로 아이를 돌보아 주는 서포트 회원의 주거지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아이가 병이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보육을 요청하는 패밀리 회원의 주거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제도는 농어촌 가정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서비스는 아니지만, 제도 활용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농촌에서 지역 내 육아를 상호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 지역에 특화된 보육사업 등을 토대로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은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번기 등 주말 노동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하며, 특히 청년층의 이주에 따른 고립된 육아의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됨을 알수 있다. 현행 공동아이돌봄센터와 같이 공동체 내부적 공급과 이용이 가능한 보육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이동식 놀이교실에서 제공하는 놀잇감과 도서 이외에도 특별활동 수요 등에 부합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에 특화된 파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 및 지원대상과의 차별화가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물론, 지방정부의 파견형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지원 단가를 설정해야 하며, 중복지원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돌봄인력의 모집과 양성 그리고 관리를 위해 필수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교육기관의 지정과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하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전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되,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서비스 신청과 연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과 사업비 편성 기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돌봄인력의 활동 범위에 가사활동 포함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영농활동 등을 위해 자녀돌봄과 별개로 가사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 지원은 파견형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농촌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수요자의 이용 수칙 및 이용 제한 기준과 돌봄인력의 활동 중지 기준 등에 관한 운영관리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농촌 공동체 내의 상호부조적 개념의 긴급일시 돌봄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웃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의 가정에서 아이를 잠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슷한 상황이 상대 가정에게서 발생하면 또 다른 이웃이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은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정의하고 현실화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V

농촌 지역 보육 지원 개선 요구 분석

- 01 표적 집단 면담(FGI) 결과 분석
- 02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03 농촌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자 면담 분석

IV. 농촌 지역 보육 지원 개선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농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과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적집단면담과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요구를 듣고 정리하였다.

1. 표적 집단 면담(FGI) 결과 분석

농촌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면담을 영아부모와 유아부모 각각 2차례씩 총 4차례 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본 절에서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 부모와 유아 부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참여자는 농식품부 사업인 ‘농촌청년보금자기주택’ 입주자, 전국4H클럽, 여성농업인협의회 등 단체를 통해 모집하였고,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가. 영아 부모

2023년 6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 부모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석자의 배경은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농촌거주 영아 부모 면담 참석자 배경 정보

구분	연령	응답자	직업	맞벌이	농촌거주기간	지역	자녀 연령	배우자 직업
부모1	32	모	주부	×	1년	충북 괴산군	10개월	농업
부모2	32	부	공무원	○	1년 3개월	충북 괴산군	만 1세	치료사
부모3	28	모	주부	×	1년	충남 서천군	10개월	수산업
부모4	36	모	주부	×	2년	충남 서천군	만 2세	회사원
부모5	40	모	주부	×	1년	전남 고흥군	11개월	유통업
부모6	31	모	자영업	○	11개월	전남 고흥군	만 1세	자영업
부모7	33	부	농업	○	5년	충남 서천군	만 1세	농업
부모8	32	모	농업	○	8년	경남 하동군	7개월	기술자

1) 농촌 거주 계기

영아 부모들이 농촌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자녀들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도시에 비해 심리·물리적으로 여유롭고, 자연을 접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직장 및 생계 문제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자녀의 조부모 등의 연고가 있거나 해당 지역이 부모의 고향이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저와 배우자 모두 과산군 출신으로 답답한 아파트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을 매매하려 알아보던 중 과산군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의료적, 교육적 등 모든 측면에서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반대를 하였었지만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라는 배우자의 강한 주장을 계기로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2)

2) 농촌에서 자녀를 돌보며 힘든 점

영아 부모들이 농촌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힘든 점은 주로 농촌의 열악한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었다.

가) 의료 시설의 부족

지역에 아동을 위한 소아과가 없고 인근 도시로 왕복 서너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의 교통비 지원 사례를 들면서 지자체의 이 같은 제도가 매우 도움이 되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제가 사는 과산군도 의료시설이 되게 취약한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 가지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서 그게 좀 너무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타 시군으로 소아과를 가서 일반 진료를 볼 때 한 아이당 한달에 한 번으로 제한해서 교통비를 5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모 1)

또한 현재 월 2회로 제한되고 있는 원격 전화 처방 제도도 횟수를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긴급, 일시 돌봄, 연장 보육 서비스의 부족

어린이집 외에 다른 교육보육 기관 부재로 인해 필요 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을 이용해야 할 때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마을회관 어르신께 맡기고 갔다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업고 진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보려 했으나 6개월 이상부터만 이용이 가능해서 더 어린 영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동 수 부족으로, 5시 이후 연장보육을 진행하는 곳이 지역 내 없고 농번기에는 오전 이른 시간에 이용하길 바랐으나 이에 대응한 서비스가 없어 힘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지역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신청을 해도 대기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더운 날에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는 애를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여름 같은 농번기에는 오전에 이른 시간에 좀 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 8)

도시에서는 네다섯 명이 같이 5시 이후에 남아 연장 보육을 했다면 시골에서는 저희 아이만 남아 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연장 보육이라는 게 말만 있지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부모 5)

육아 돌보미를 알아보니까 거리상 이제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특성상 거리상 돌보미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돌보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신청하는 가정이 많아 이 가족센터에서도 군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신청을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 5)

다) 정보 공유의 어려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간의 교류가 거의 없어 이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지가 가까운 부모 간 연결되어 농촌 내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했고 품앗이 육아나 공동육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부모도 있었다.

정보와 관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한 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

인만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있었으면 했다.

라) 육아 물품 구매의 불편

도시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육아용 물품도 구입을 위해 타지역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하다고 응답도 있었다.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젖양이 줄어서 아이가 보채고 급하게 보충수유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천군에 있는 큰 마트들을 다 돌아봤는데 분유 코너가 없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천군에 있는 모든 마트가 분유를 뺐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마트에 항상 분유를 팔았었는데 그 흔한 분유, 기저귀조차 서천군에서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까지 차 타고 가서 사야 합니다. 시골에 살아서 남편이 퇴근하고 차가 있어야 어딜 갈 수 있는 저에게는 육아하기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부모 3)

3) 보육·교육기관 입학 및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영아 부모들의 응답에 따르면 농촌에서의 보육·교육기관 입학은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관 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개별 기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차량운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 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등원시키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나,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녀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경우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 함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직 기관을 다니진 않지만 기관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차량운행을 안 해주는 기관도 있어서 주 양육자가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하면 다니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모 3)

입학 시에는 주변 기관의 수가 아주 적어 선택지가 없었고, 모든 기관이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아이를 늦게까지(5시 이후) 맡겨야 하는 경우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나,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 긴급보육 수요조사를 하지만 원아 수가 아주 적어 더 눈치가 보였고, 자영업을 하는 우리 부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모 5)

4) 향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점

농촌 지역의 영아 부모들이 향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학교폭력, 학대 등)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의 작은 규모로 인해 학부모 및 학생들 간 친분과 연결고리에서 비롯되는 신뢰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거나, 마땅한 곳이 없을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의 질이 도시에 비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자녀가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도시에 비해 너무 적어 사회화의 기회가 적을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사는 곳(비인)의 초등학교는 반 하나에 학생 수가 두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하며 사회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래 친구들이 적다보니 인간관계가 너무 편협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 3)

5) 육아도우미(농촌형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 이용 또는 근로 의향

농촌 지역의 영아 부모들은 대체로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나 영양, 위생과 관련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양성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비롯해서 CCTV의 설치 등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노인 인력이 많은 농촌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6, 70대의 인근 노년층이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주. 농업 종사 부모)도 있었으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4, 50대이므로 인근 노인의 돌보미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육아도우미로 근로할 의향이 있다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 경우 본인의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후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인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한 육아도우미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작년에 임신 후기에 서천에 이사 와서 멋모르고 독박육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시골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고 어떻게 도움받을지도 몰라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도우미를 꼭 쓰고 싶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육아 도우미 분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육아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부모 3)

여기에서는 육아도우미를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정장과 다문화가정 또는 토박이 마을주민가정들이 서로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계층이 서로에 대해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유연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용하기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1~2시간 내외로라도, 내가 양육해야 하는 내 자녀가 있는 한 육아도우미 활동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다. (부모 5)

돌보미 양성과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로, 개별 가정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연장보육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농촌의 어린이집에 육아도우미가 가서 연장보육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을 제안한 부모도 있었다.

나. 유아 부모

2023년 6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부모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석자의 배경은 다음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농촌거주 유아 부모 면담 참석자 배경 정보

분류	연령	응답자	직업	맞벌이	농촌거주기간	지역	자녀 연령	배우자 직업
부모1	31	부	농업	○	15년	경기 단원구	만 4세	간호사
부모2	41	모	공무원	○	1년 4개월	충북 괴산군	만 5세	공기업 사원
부모3	-	모	주부	×	2년	충북 괴산군	만 3세	-
부모4	34	모	사무직	○	6개월	충남 서천군	만 3세	프리랜서
부모5	40	모	주부	-	-	충남 서천군	만 3세	-
부모6	38	모	작가	○	9개월	전남 고흥군	만 4세	목사
부모7	46	모	농업	○	16년	경남 산청군	만 3세	농업
부모8	36	부	농업	×	12년	경남 의령군	만 6세	주부

1) 농촌 거주 계기

유아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자연 환경에서 교육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청년농촌 보금자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나 부모의 직장 및 건강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계기로 농촌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의견 역시 다수 존재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골에서 거주하고자 몇 년 전부터 뜻을 모아왔습니다. 여러 지방을 탐방하며 거주할 곳을 모색하다가 고향에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생기면서 고향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6)

2) 농촌에서 자녀를 돌보며 힘든 점

유아 부모 역시 영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자녀를 돌보며 병원, 교육 및 보육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 별로 정리해보았다.

가)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거주 중인 지역에 소아과가 하나도 없고 인접한 타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여도 병원 예약 자체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족 중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영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의료 시설 이용의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는 유아 부모가 많았다.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소아과가 없고 응급 기관이 없다 보니까 시 소재지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 새벽 시간대는 그래서 조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고..(부모 4)

병원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창원이나 진주에 가면 됐지만 차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저를 새벽에 깨워서 창원 병원까지 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부모 8)

보건소에 아동 담당 의사를 한 명만 두더라도 급한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 8)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병원입니다. 소아과 하나 없어 아이들이 아프면 1시간은 기본이고 진주시로 나가야 합니다. 병원은 예약조차 힘들어 아이가 열이 나면 늘 긴장됩니다. (부모 7)

나) 교육 및 문화 시설의 낮은 접근성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 교육, 문화 교실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갈증이 높았다. 도시에 있는 예체능 등 학원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또한 발달 지연 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센터 등의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교육 관련된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도 왜 굳이 시골에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6개월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들고 있고요, ..(부모 4)

가정보육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랬는데 가정 보육을 하면서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제일 많이 느낀 게 문화적으로 너무 소외가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 1)

아이가 언어지연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발달 관련 교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충남에는 아동 발달 지연(장애)에 관한 제도가 없고, 서천에 관련 교육기관이 없어서 전북 군산까지 아이를 매주 데리고 다니며 최근에는 귀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부모 4)

다) 모의 독박육아와 소외감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간 교류나 커뮤니티가 도시에 비해 적어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영농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부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 모가 느끼는 독박육아와 소외감으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와이프는 문화생활도 없고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낼 나이 때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1)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또래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집 앞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어요. (부모 4)

저는 와이프 우울증 없애게 하려고 와이프 친구들을 매일 한 명씩 불렀어요. (부모 8)

3) 보육·교육기관 입학 및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유아 부모는 영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서 기관 입학 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경험과 자극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가) 프로그램과 교사 전문성에 대한 불만족

면소재지 어린이집의 경우 병설유치원과 비교하였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험 활동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예체능 등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도시는 입소 대기가 길고 들어가기도 어려웠지만, 시골에서는 어디나 아이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라 입학이나 입소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둘째와 셋째가 다니는 면소재지 어린이집은 재원 아동의 수가 적어 외부 강사가 오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등의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듭니다. 첫째가 다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이 마련돼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모 6)

의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 자체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전문성을 띤 교사가 대부분 없어요.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문이 나서 그 쪽으로 옮기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돌봄만 하고, 여기서 지낼 것 같으면 차라리 할머니 손에 키우던지.. (부모 8)

여기는 뭐랄까 발전 의향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부모 8)

오감 미술 수업이라든가 체육 수업이라든가 이런 외부 활동이 전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보육, 돌봐주는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 4)

나) 연령별 수업 불가능

또래 친구가 부족하여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 특히 나이가 많은 형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혼합반 운영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농촌 특히 면단위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소수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아무래도 또래들이 친구들이 많으면 걱정 안 하고 보냈을 텐데 형들이랑 놀다보면 좀 뒤쳐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말도 못 하는데 한창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많았을 때여서..(부모1)

다) 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면소재지까지 차량운행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량 운행을 해주지지 않아서 선택지에 넣을 수 없었던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부모 4)

버스가 어쨌든 15km 이상 넘어가니까 안 온다 하더라고요. 만약 차량 지원을 해주신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나 엄마들끼리 같이 문화센터로 애들 데리고 가는 거나 이런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모 8)

4) 향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점

유아 부모가 향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점으로는 신체 및 정서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바깥 놀이 등 외부 활동과 함께 마을 청소를 하는 등의 공동체 생활의 경험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유아 부모가 우려하고 있는 점으로는 학습과 관련된 것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앞으로 다니게 될 공교육 기관이 폐쇄될 것에 대한 걱정이나, 학원 수가 적고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과 수학 수준에서 격차가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열악한 안전시설 및 치안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촌에 와서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아이들이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활동이 많으니 밥도 잘 먹고 건강해진 느낌이고요. 자연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 6)

도시와 대비해 당연한 문제이지만 학업 및 예체능 관련 학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나마도 있는 학원은 서천읍에만 있기 때문에 읍소재지 외 면소재지 아이들은 그마저도 다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밀집 및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나 농촌은 농촌대로 군단 위 안에서도 학업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밀집을 초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부모 5)

5) 육아도우미(가정 방문 아이돌보미) 이용 또는 근로 의향

유아 부모는 육아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골고루 분포하였다. 이용할 의향이 없는 부모들은 대

제로 기관 등을 통해 이미 돌봄 공백이 해소된 경우였다.

유아 부모들 중 주변에 육아도우미 또는 아이돌보미로 근로할 의향이 있는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근이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권해볼 만한 인력이 드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기관에서 인증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녀를 맡기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농업 쪽으로 본다면 자기 농사하는 것도 바쁘고 퇴근이 일정하지 않기에 권해볼 만한 사람은 극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에게 권할 수밖에 없는데 의령에는 그 수도 현저히 낮은 편이라 도시에서 육아도우미를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8)

2.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모)이 71.0%로 남성(부) 29.0%보다 많았으며, 거주권역 즉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북, 경남 별로 동일수를 표집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읍 거주자(65.2%)가 면 거주자(34.8%)보다 그 수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지난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인 경우가 23.2%여서 전체의 1/4 정도가 귀농/귀촌 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가정이 22.7% 포함되었다. 다문화가정은 3.7%로, 조사의 한계로 인해 참여 수가 적었다. 연령대는 만30-39세인 경우(60.3%)가 가장 많았다.

〈표 IV-2-1〉 설문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600)			
성별			영농가정 여부		
남성(부)	29.0	(174)	해당	22.7	(136)
여성(모)	71.0	(426)	비해당	77.3	(464)
거주권역			다문화가정 여부		
경기, 강원	20.0	(120)	해당	3.7	(22)
충청	20.0	(120)	비해당	96.3	(578)
호남	20.0	(120)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경북	20.0	(120)	연령		
경남	20.0	(120)			
거주지역					
읍	65.2	(391)		만 20-29세	4.5 (27)
면	34.8	(209)		만 30-39세	60.3 (362)
(10년 이내) 귀농/귀촌여부				만 40-49세	27.7 (166)
해당	23.2	(139)		만 50-59세	2.0 (12)
비해당	76.8	(461)		만 60세 이상	5.5 (33)

영농가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주 농업 품목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과수농사(33.1%), 논농사(30.9%), 밭농사(22.8%), 축산(10.3%) 순서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영농가정의 주 농사 종류

단위: %(명)

구분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축산	기타	계(수)
전체	30.9	22.8	33.1	10.3	2.9	100.0 (136)
성별						
남성	50.0	11.1	27.8	11.1	0.0	100.0 (18)
여성	28.0	24.6	33.9	10.2	3.4	100.0 (118)
거주지역						
읍	26.6	22.8	35.4	10.1	5.1	100.0 (79)
면	36.8	22.8	29.8	10.5	10.5	100.0 (57)

나. 가정 환경

1) 부의 직업 및 근무 시간

아동 부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무 종사자나 교사(26.3%)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 종사자(17.5%)가 많았는데, 이 경우 다 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47.4%)가 그렇지 않은 경우(16.5%)보다 더 많았다. 이외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6%),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0.2%) 순서로 빈번하게 응답하였다. 귀농/귀촌 가정의 경우에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23.5%로 다

른 직업군보다 비율이 높았고 사무종사자나 교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농업종 종사자를 과표집한 표본이므로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는 없다.

〈표 IV-2-3〉 부의 직업

단위: %(명)

구분	전체	거주지역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읍	면	여	부	여	부
농림어업 종사자	17.5	16.0	20.3	23.5	15.7	47.4	16.5
사무 종사자/교사	26.3	27.2	24.8	22.7	27.4	31.6	26.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9	6.1	5.4	5.4	6.1	0.0	6.1
관리자	7.5	6.7	8.9	6.1	7.9	0.0	7.7
서비스 종사자	7.3	7.7	6.4	5.3	7.9	5.3	7.3
판매 종사자	2.6	2.9	2.0	2.3	2.7	0.0	2.7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0.2	9.3	11.9	8.3	10.8	5.3	10.4
단순노무 종사자	5.4	5.6	5.0	6.1	5.2	5.3	5.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	12.3	7.4	13.6	9.7	5.3	10.8
기타	6.8	6.1	7.9	6.8	6.7	0.0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7)	(375)	(202)	(128)	(449)	(19)	(558)

한편, 부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8/9시부터 18시(61.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시~20시 이후까지(28.1%)였다. 농업인의 경우 농번기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연간 일상적 근무 시간이라기보다는 가장 장시간 근무가 필요할 시기임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거주지역(읍/면)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영농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9시~18시에 근무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영농 48.4%, 비영농 65.7%), 6시~20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비율은 높았다(영농 38.3%, 비영농 25.2%).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영유아 부는 농번기일 경우 새벽 6시 경부터 밤까지 종일 근무하는 비율이 38%가 넘어 일정 시기 동안은 부의 육아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2-4〉 부의 근무시간

단위: %(명)

구분	종일 (6~20시 이후까지)	오전/오후 (9시~18시)	아침 (5시~9시)	반일 (9시~13시 /12~18시)	야간 (20시~5시)	비해당 /모름	계(수)
전체	28.1	61.9	0.7	1.9	1.2	6.2	100.0 (577)
거주권역							
경기/강원권	28.0	60.2	0.0	1.7	2.5	7.6	100.0 (118)
충청권	21.6	72.4	0.0	0.0	0.9	5.2	100.0 (116)
호남권	31.6	60.7	0.9	2.6	0.9	3.4	100.0 (117)
경북권	24.3	59.5	1.8	2.7	0.9	10.8	100.0 (111)
경북권	34.8	56.5	0.9	2.6	0.9	4.3	100.0 (115)
거주지역							
읍	27.7	60.5	1.1	1.6	1.6	7.5	100.0 (375)
면	28.7	64.4	0.0	2.5	0.5	4.0	100.0 (202)
영농가정 여부							
해당	38.3	48.4	3.1	3.1	0.0	7.0	100.0 (128)
비해당	25.2	65.7	0.0	1.6	1.6	6.0	100.0 (449)

2) 모의 직업 및 근무 시간

농어촌 영유아 모 중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90.6%로 전업주부 9.4%라고 응답한 경우의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 영유아 모 중 10% 이하만이 전적으로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 취업 비율인 5~60%를 훨씬 웃도는 비율로, 농촌에서 근로 여성을 고려한 영유아 보육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지역별로는 영농가정 비율이 높은 호남지역의 전업주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문화가정인 경우 직업을 가진 모의 비율이 다문화가 아닌 가정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모가 집에 있는 비율이 비교적 많아 이들에 대한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모의 직업 종사 현황

		직업 종사	전업주부	계 (수)
전체		90.6	9.4	100.0 (584)
거주권역	경기/강원권	90.8	9.2	100.0 (120)
	충청권	91.2	8.8	100.0 (113)
	호남권	95.8	4.2	100.0 (119)
	경북권	87.0	13.0	100.0 (115)
	경남권	88.0	12.0	100.0 (117)
거주지역	읍	90.4	9.6	100.0 (384)
	면	91.0	9.0	100.0 (200)
귀농/귀촌 여부	해당	92.0	8.0	100.0 (138)
	비해당	90.1	9.9	100.0 (446)
영농가정 여부	해당	89.3	10.7	100.0 (122)
	비해당	90.9	9.1	100.0 (462)
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81.0	19.0	100.0 (21)
	비해당	90.9	9.1	100.0 (563)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고 응답한 모에게 직업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 종사자 및 교사(29.3%)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1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3%, 서비스 종사자 10.2% 순이었다. 영농가정으로 보고한 가정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영유아의 모는 58.7%였고 다문화가정 중 모가 농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4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6〉 모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거주지역		영농가정		다문화가정	
		읍	면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농림어업 종사자	12.3	11.0	14.8	58.7	0.2	47.1	11.1
사무 종사자/교사	29.3	30.3	27.5	8.3	34.8	5.9	30.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	1.4	0.5	0.9	1.2	0.0	1.2
관리자	2.5	2.3	2.7	0.0	3.1	0.0	2.5
서비스 종사자	10.2	8.9	12.6	5.5	11.4	5.9	10.4
판매 종사자	3.0	2.3	4.4	5.5	2.4	0.0	3.1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9	1.7	2.2	1.8	1.9	0.0	2.0
단순노무 종사자	7.6	7.8	7.1	4.6	8.3	29.4	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3	11.2	11.5	5.5	12.9	5.9	11.5
기타	20.8	23.1	16.5	9.2	23.8	5.9	2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7)	(347)	(182)	(109)	(420)	(17)	(512)

모의 근무시간을 보면 오전 9시~18시(44.6%)라는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반일 근무도 1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전 6시경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종일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나 되어 이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농가정이나 영농가정이 아닌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11~12% 정도가 종일 근무라고 보고 하였으나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른 아침에 일을 한다는 비율은 영농가정이 2.8%로 나타나 0.5%인 비영농가구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2-7〉 모의 근무시간

단위: %, (명)

구분	종일 (6~20시 이후까지)	오전/오후 (9시~18시)	아침 (5시~9시)	반일 (9시~13시 /12~18시)	야간 (20시~5시)	비해당 /모름	계(수)
전체	12.3	44.6	0.9	19.5	2.3	20.4	100.0 (577)
거주권역							
경기/강원권	11.9	42.2	0.0	22.9	0.0	22.9	100.0 (109)
충청권	8.7	49.5	0.0	16.5	1.0	24.3	100.0 (103)
호남권	13.2	50.9	0.9	18.4	1.8	14.9	100.0 (114)
경북권	11.0	39.0	3.0	17.0	8.0	22.0	100.0 (100)
경북권	16.5	40.8	1.0	22.3	1.0	18.4	100.0 (103)
거주지역							
읍	11.8	46.1	1.4	16.4	3.2	21.0	100.0 (347)
면	13.2	41.8	0.0	25.3	0.5	19.2	100.0 (182)
영농가정 여부							
해당	11.0	46.8	2.8	28.4	1.8	9.2	100.0 (109)
비해당	12.6	44.0	0.5	17.1	2.4	23.3	100.0 (420)

3) 가구 소득

농촌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400~500만원(25.3%)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400만원(23.0%), 500~600만원(18.2%), 600만원 이상(17.3%) 순이었다. 영농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33.3%)보다 400만원 이상(66.8%)인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다. 영농가정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400만원 이

하 59.6%, 400만원 이상 40.5%).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72.7%)인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 다문화가구의 평균 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2.7	13.5	23.0	25.3	18.2	17.3	100.0 (600)
거주지역							
읍	2.6	13.8	22.3	24.6	18.2	18.7	100.0 (391)
면	2.9	12.9	24.4	26.8	18.2	14.8	100.0 (209)
귀농/귀촌 여부							
해당	3.6	18.7	18.0	28.1	15.8	15.8	100.0 (139)
비해당	2.4	11.9	24.5	24.5	18.9	17.8	100.0 (461)
영농가정 여부							
해당	4.4	22.8	32.4	24.3	10.3	5.9	100.0 (136)
비해당	2.2	10.8	20.3	25.6	20.5	20.7	100.0 (464)
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13.6	27.3	31.8	13.6	0.0	13.6	100.0 (22)
비해당	2.2	13.0	22.7	25.8	18.9	17.5	100.0 (578)

4) 차량 소유 현황

대중교통 서비스가 흔하지 않은 농촌의 경우 자가용 차량 없이는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 및 보육 목적에서 자녀 이동의 자유로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내 자가용 보유 여부 및 부모의 운전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농촌 영유아 부모 중에는 차량이 있는 경우(96.3%)가 대다수였으며, 부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은 98.1%로 거의 모든 부가 차량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은 70.2%로, 약 30%의 모는 이동에 제한을 가지고 있었다.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차량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차가 한 대 밖에 없는 경우 자녀의 부가 차량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 있는 시간에는 모가 차량을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은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기는 하지만, 전체의 23.8%만이 차량을 운전한다고 응답하여 이들 가정의 경우 더욱 교육 장소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2-9〉 가구 내 자가용 보유 여부 및 부모의 운전 여부

단위: %(명)

구분	차량 보유 여부		부의 운전여부		모의 운전여부	
	차량 있음	(사례수)	차량을 운전함	(사례수)	차량을 운전함	(사례수)
전체	96.3	(600)	98.1	(570)	70.2	(564)
거주지역						
읍	96.9	(391)	98.1	(373)	68.5	(372)
면	95.2	(209)	98.0	(197)	73.4	(192)
영농가정 여부						
해당	94.9	(136)	98.4	(127)	62.4	(117)
비해당	96.8	(464)	98.0	(443)	72.3	(447)
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100.0	(22)	86.4	(22)	23.8	(21)
비해당	96.2	(578)	98.5	(548)	72.0	(543)

다.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 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유치원 37.8%, 어린이집 52.5%로 나타났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9.3%,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소수(0.3%)지만 있었다. 거주지역이나 영농가정 여부에 따른 이용 기관 분포 비율에는 대체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읍지역(11.0%)보다는 면지역(6.2%)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비다문화가정 자녀보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교육/보육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기관	기관 이용 없음	계(수)
전체 ¹⁾					
첫째	52.5	37.8	0.3	9.3	100.0 (600)
둘째	60.5	13.0	0.6	25.9	100.0 (162)
셋째	27.3	9.1	0.0	63.6	100.0 (11)
거주지역 ²⁾					
읍	52.4	36.3	0.3	11.0	100.0 (391)
면	52.6	40.7	0.5	6.2	100.0 (209)
영농가정 여부					
해당	53.7	36.0	0.0	10.3	100.0 (136)
비해당	52.2	38.4	0.4	9.1	100.0 (464)
다문화 가정					
해당	40.9	45.5	0.0	13.6	100.0 (22)
비해당	52.9	37.5	0.3	9.2	100.0 (578)

1) 영유아 연령 자녀 중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임.

2) 거주지역별, 영농가정 여부별, 다문화가정여부별 이용 수치는 첫째 아동을 기준으로 함.

앞선 문항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돌보고 싶음(89.3%)’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경우, 면지역(84.6%)보다는 읍지역(90.7%)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내고 싶은 기관은 있으나 정원이 차서 자리가 없음(5.4%)’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 경우에는 읍 지역(2.3%)보다는 면 지역(15.4%) 거주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소수지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 없음(1.8%)’, ‘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보내기가 어려움(1.8%)’, ‘기관을 보내다가 일시적으로 집에서 돌보고 있음(1.8%)’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IV-2-11〉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 없음	보내고 싶은 기관은 있으나 정원이 차서 자리가 없음	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보내기가 어려움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돌보고 싶음	기관을 보내다가 일시적으로 집에서 돌보고 있음	계(수)
전체	1.8	5.4	1.8	89.3	1.8	100.0 (56)
거주지역						
읍	2.3	2.3	2.3	90.7	2.3	100.0 (43)
면	0.0	15.4	0.0	84.6	0.0	100.0 (13)

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 없음	보내고 싶은 기관은 있으나 정원이 차서 자리가 없음	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보내기가 어려움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돌보고 싶음	기관을 보내다가 일시적으로 집에서 돌보고 있음	계(수)
다문화 가정 여부						
해당	0.0	33.3	33.3	33.3	0.0	100.0 (3)
비해당	1.9	3.8	0.0	92.5	1.9	100.0 (53)

라. 농촌의 육아 환경에 대한 의견

부모들에게 현재 거주 중인 농촌 지역에서의 육아환경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2-12>와 같다.

부모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은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그렇다+매우 그렇다 75.3%)는 것으로, 5점 척도 점수에서 유일하게 4점을 넘는 점수인 4.12의 평균을 보여 이 항목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6.1%)로 3.96점이었다. 이 외에도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5.5%),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1.5%),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 60.5%)는 응답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그렇다+매우 그렇다 27.6%)는 것이었다.

<표 IV-2-12> 농촌지역의 육아환경 관련 항목 동의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그렇다 비해당	계(수)	평균 (5점)
1)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6.8	18.5	25.0	30.0	18.8	0.8	100.0 (600)	3.36
2)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7.2	18.5	23.5	30.3	19.0	1.5	100.0 (600)	3.36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3.8	7.3	18.2	35.7	29.8	5.2	100.0 (600)	3.85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2.0	9.0	11.2	28.8	46.5	2.5	100.0 (600)	4.12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비해당	계(수)	평균 (5점)
5) 친구 및 친척 등 가까이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10.5	26.2	17.3	23.0	21.3	1.7	100.0 (600)	3.19
6)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19.3	27.0	24.2	18.8	8.8	1.8	100.0 (600)	2.70
7)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 등을 구하기 어렵다	3.3	7.8	24.8	28.5	25.2	10.3	100.0 (600)	3.72
8)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3.5	11.2	20.2	31.3	30.2	3.7	100.0 (600)	3.76
9) 어린이집/유치원의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8.7	19.7	23.2	23.5	21.8	3.2	100.0 (600)	3.31
10)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4.3	9.2	13.8	24.8	41.3	6.5	100.0 (600)	3.96
11)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3.5	10.5	28.7	29.8	26.5	1.0	100.0 (600)	3.66
12)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2.7	7.5	26.3	32.3	28.2	3.0	100.0 (600)	3.78
13)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3.3	11.0	28.3	32.5	22.8	2.0	100.0 (600)	3.62
14) 농촌에는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4.3	12.0	23.3	26.2	31.7	2.5	100.0 (600)	3.71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라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 매우 동의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볼 때 영농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동의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의료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이나 동의 정도가 큰 편이었으나 특히 읍보다는 면지역에서, 귀농/귀촌 가정과 영농가정, 다문화가정에서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비해당 가정보다 더 높았다.

그 외에도 영농을 주로 하는 가정에서는 ‘다른 부모와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학원이나 교육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교육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가 높은 지지를 받았고,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부모 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 의견을 보였다.

〈표 IV-2-13〉 제 특성별 농촌지역 육아환경 관련 항목 동의 수준(5점 척도)

구분	전체	거주 지역		귀농/귀촌		영농가정		다문화가정	
		읍	면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1)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3.36	3.28	3.50	3.35	3.36	3.84	3.22	3.45	3.35
2)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3.36	3.30	3.47	3.35	3.36	3.87	3.21	3.68	3.35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3.85	3.80	3.94	3.87	3.84	3.95	3.82	3.67	3.85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4.12	4.16	4.03	4.04	4.14	3.82	4.20	3.90	4.12
5) 친구 및 친척 등 가까이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3.19	3.20	3.16	3.39	3.13	3.21	3.18	3.68	3.17
6)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2.70	2.69	2.73	2.86	2.66	3.50	2.47	3.23	2.68
7)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 등을 구하기 어렵다	3.72	3.68	3.79	3.75	3.71	3.77	3.70	3.81	3.71
8)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3.76	3.72	3.85	3.87	3.73	4.07	3.67	4.00	3.75
9) 어린이집/유치원의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3.31	3.25	3.43	3.34	3.30	3.95	3.12	4.10	3.18
10)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3.96	3.85	4.16	4.29	3.87	4.35	3.84	4.23	3.95
11)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3.66	3.61	3.75	3.84	3.61	4.18	3.51	4.00	3.65
12)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3.78	3.71	3.91	3.99	3.72	4.05	3.70	4.05	3.77
13)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3.62	3.58	3.70	3.77	3.57	3.97	3.52	4.00	3.60
14)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3.71	3.65	3.82	3.99	3.62	4.15	3.58	4.00	3.70

거주 농촌 지역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1순위)에 대한 응답도 앞선 문항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27.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경우 영농가정(14.0%)보다는 비영농가정(31.0%)이 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16.8%)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높았는데, 비영농가정(18.3%)이 영농가정

(11.8%)보다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15.0%)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영농가정(5.1%)보다 비영농가정(17.9%)이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11.2%)와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11.8%)는 응답의 경우는 비영농가정인 경우(영아 9.9%, 유아 7.5%)보다 영농가정인 경우(영아 15.4%, 유아 26.5%) 더 큰 필요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거주 농촌 지역 관련 개선 필요사항_1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거주지역		영농가정		(사례수)
		읍	면	해당	비해당	
1)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11.2	10.0	13.4	15.4	9.9	(600)
2)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11.8	10.7	13.9	26.5	7.5	(600)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15.0	14.8	15.3	5.1	17.9	(600)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27.2	29.9	22.0	14.0	31.0	(600)
5) 친구 및 친척 등 가까이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2.7	3.1	1.9	1.5	3.0	(600)
6)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2.3	1.8	3.3	4.4	1.7	(600)
7)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 등을 구하기 어렵다	2.3	2.6	1.9	4.4	1.7	(600)
8)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4.0	3.6	4.8	2.9	4.3	(600)
9) 어린이집/유치원의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1.3	1.5	1.0	2.2	1.1	(600)
10)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16.8	16.4	17.7	11.8	18.3	(600)
11)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0.7	0.3	1.4	2.2	0.2	(600)
12)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0.7	1.0	0.0	0.0	0.9	(600)
13)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0.3	0.3	0.5	1.5	0.0	(600)
14)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3.7	4.1	2.9	8.1	2.4	(600)

다음으로 농촌 지역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1+2+3순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표 IV-2-15>와 같다. 이 경우에도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55.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면 지역(49.8%)보다는 읍지역(58.8%), 영농가정(32.4%)보다는 비영농가정(62.5%)이 더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49.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 경우에는 읍 지역(44.0%)보다는 면 지역(58.4%)이 더 큰 필요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33.5%)는 응답의 경우, 영농가정(21.3%)인 경우보다 비영농가정(37.1%)인 경우에 그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순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응답의 경향과 유사하게, 영농가정인 경우(영아 23.5%, 유아 36.0%), 비영농가정인 경우(영아 15.9%, 유아 15.7%)보다 더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거주 농촌 지역 관련 개선 필요사항_1+2+3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거주지역		영농가정 여부		(사례수)
		읍	면	해당	비해당	
1) 영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17.7	16.1	20.6	23.5	15.9	(600)
2) 유아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20.3	19.7	21.5	36.0	15.7	(600)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이 부족하다	33.5	33.8	33.0	21.3	37.1	(600)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55.7	58.8	49.8	32.4	62.5	(600)
5) 친구 및 친척 등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11.5	12.8	9.1	8.8	12.3	(600)
6)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집에서 너무 멀다	8.3	7.7	9.6	16.9	5.8	(600)
7)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 등을 구하기 어렵다	16.7	18.4	13.4	11.8	18.1	(600)
8)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28.5	28.4	28.7	23.5	30.0	(600)
9)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예체능, 영어 등 특별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12.8	14.3	10.0	19.1	11.0	(600)
10)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49.0	44.0	58.4	50.0	48.7	(600)

구분	전체	거주지역		영농가정 여부		(사례수)
		읍	면	해당	비해당	
11)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9.0	7.7	11.5	11.8	8.2	(600)
12)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8.0	9.0	6.2	10.3	7.3	(600)
13)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10.3	11.0	9.1	14.7	9.1	(600)
14) 농촌에는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18.7	18.4	19.1	19.9	18.3	(600)

바. 보육지원 개선 안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1) 통학차량 관련

영유아의 보육/교육 기관 통학차량 이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가량(49.5%)이었다.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만 본인 자녀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5.7%였고,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15.5%였다. 이외 9.3%는 기관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였다. 영농가정에 해당하는 경우(72.1%), 해당하지 않는 경우(42.9%)보다 기관 차량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비영농가정의 경우 기관에서는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29.1%)가 영농가정의 경우(14.0%)보다 더 빈번하였다. 또한, 비영농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기관을 다니고 있는 경우(18.8%)가 영농가정의 경우(4.4%)보다 더 많았다.

〈표 IV-2-16〉 기관의 통학차량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하고 있음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만 본인 자녀는 이용하지 않음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음	기관을 다니지 않고 있음	계(수)
전체	49.5	25.7	15.5	9.3	100.0 (600)
거주지역					
읍	49.4	23.5	16.1	11.0	100.0 (391)
면	49.8	29.7	14.4	6.2	100.0 (209)

구분	이용하고 있음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만 본인 자녀는 이용하지 않음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음	기관을 다니지 않고 있음	계(수)
영농가정 여부					
해당	72.1	14.0	4.4	9.6	100.0 (136)
비해당	42.9	29.1	18.8	9.3	100.0 (464)

아동이 기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2-17>과 같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가족이 직접 데려다 주는 것을 더 선호해서’(46.1%)였는데, 특히 읍 지역(54.3%)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면 지역의 경우는 ‘우리 집이 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차량이 오지 않아서’(29.0%)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전체 15.6%, 읍 지역 6.5%). 지역 면적이 넓고 어린이집이 대부분 위치한 읍지역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자의가 아닌, 차량이 오지 않아 직접 데려다주는 비율이 많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면 지역의 접근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2-17> 미취학 아동 이용 기관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우리 집이 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차량이 오지 않아서	어린이의 차량 이용은 안전 면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 너무 오래 차를 타게 되는 것이 싫어서	부모나 가족이 직접 데려다 주는 것을 더 선호해서	기타	계(수)
전체	15.6	9.1	3.9	46.1	25.3	100.0 (154)
거주지역						
읍	6.5	12.0	2.2	54.3	25.0	100.0 (92)
면	29.0	4.8	6.5	33.9	25.8	100.0 (62)
영농가정 여부						
해당	5.3	26.3	10.5	36.8	21.1	100.0 (19)
비해당	17.0	6.7	3.0	47.4	25.9	100.0 (135)

자녀가 차량을 탑승하여 기관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등원의 경우 평균 18.05분, 하원의 경우 평균 18.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영유아가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보면, 짧지는 않은 시간이다. 전체적으로 차량 탑승 이동시간이 10분 이내(등원 32.3%, 하원 31.6%)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6~20분(등원 23.6%, 22.9%)인 경우가 많았다. 등·하원시간 모두 읍면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면 지역 거주인 경우가 많은 영농가정의 경우(등원 21.28분, 하원 21.28분) 비영농가정(16.47분, 16.68분)보다 차량을 탑승하여 이동하는 평균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8〉 차량 탑승 이동 시간_등원

단위: %(명), 분

구분	10분 이내	11~15분	16~20분	21~30분	30분 초과	계(수)	평균
전체	32.3	18.5	23.6	19.9	5.7	100.0 (297)	18.05
거주지역							
읍	34.2	17.6	22.3	20.7	5.2	100.0 (193)	17.93
면	28.8	20.2	26.0	18.3	6.7	100.0 (104)	18.28
영농가정 여부							
해당	16.3	22.4	24.5	23.5	13.3	100.0 (98)	21.28
비해당	40.2	16.6	23.1	18.1	2.3	100.0 (199)	16.47

〈표 IV-2-19〉 차량 탑승 이동 시간_하원

단위: %(명), 분

구분	10분 이내	11~15분	16~20분	21~30분	30분 초과	계(수)	평균
전체	31.6	19.5	22.9	19.9	6.1	100.0 (297)	18.20
거주지역							
읍	32.6	16.6	23.3	22.8	4.7	100.0 (193)	18.24
면	29.8	25.0	22.1	14.4	8.7	100.0 (104)	18.12
영농가정 여부							
해당	16.3	21.4	25.5	24.5	12.2	100.0 (98)	21.28
비해당	39.2	18.6	21.6	17.6	3.0	100.0 (199)	16.68

농촌 영유아 부모 중 가정-기관 중간 경유지에서 기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0.9%였다. 특히 면 지역(56.0%)인 경우와 영농가정(50.0%)인 경우에 의용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0〉 가정-기관 중간 경유지에서 서틀 이용 방안에 대한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이용 의사 있음	이용 의사 없음	계(수)	
전체	40.9	59.1	100.0	(44)
거주지역				
읍	21.1	78.9	100.0	(19)
면	56.0	44.0	100.0	(25)
영농가정 여부				
해당	50.0	50.0	100.0	(8)
비해당	40.5	59.5	100.0	(36)

2) 돌봄 방법 관련

평일 낮 시간대 영유아 돌봄 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집(55.8%)이나 유치원(34.2%) 등 기관에 돌봄을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6.7%)였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돌봄을 맡긴다는 응답도 소수지만(3.0%) 있었고, 아이돌보미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0.3%).

〈표 IV-2-21〉 평일 낮 시간대 영유아 주 돌봄 방법

단위: %(명)

구분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 아이돌보미	조부모/ 친인척	계(수)	
전체	6.7	55.8	34.2	0.3	3.0	100.0	(600)
거주지역							
읍	8.2	56.8	32.2	0.3	2.6	100.0	(391)
면	3.8	54.1	37.8	0.5	3.8	100.0	(209)
귀농/귀촌 여부							
해당	8.6	56.8	31.7	0.7	2.2	100.0	(139)
비해당	6.1	55.5	34.9	0.2	3.3	100.0	(461)
영농가정 여부							
해당	5.9	58.1	30.9	0.0	5.1	100.0	(136)
비해당	6.9	55.2	35.1	0.4	2.4	100.0	(464)

이와 같이 평일 낮 시간대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과 부모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이 일치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는 응답이 84.8%였다.

〈표 IV-2-22〉 평일 낮 시간대 돌봄 방법과 희망 돌봄 방법 간의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 방법임	희망하는 돌봄방법이 아님	계(수)
전체	84.8	15.2	100.0 (600)
거주지역			
읍	85.4	14.6	100.0 (391)
면	83.7	16.3	100.0 (209)
영농가정 여부			
해당	86.8	13.2	100.0 (136)
비해당	84.3	15.7	100.0 (464)

앞서 양육 방식 일치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희망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15.2%), 희망하는 양육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주로 희망하는 방식은 ‘부모가 직접 돌봄’(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가정인 경우(66.7%) 비영농가정인 경우(41.1%)보다 이 방식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치원(15.4%) 및 어린이집(13.2%)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특히 비영농가정인 경우(유치원 16.4%, 어린이집 16.4%)가 영농가정(유치원 11.1%, 어린이집 0.0%)보다 기관 돌봄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3〉 희망하는 돌봄 방법이 아닌 경우, 희망 돌봄 방법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46.2	13.2	15.4	2.2	6.6	5.5	6.6	4.4	100.0 (91)
거주지역									
읍	43.9	15.8	14.0	1.8	8.8	5.3	5.3	5.3	100.0 (57)
면	50.0	8.8	17.6	2.9	2.9	5.9	8.8	2.9	100.0 (34)
영농가정 여부									
해당	66.7	0.0	11.1	0.0	11.1	5.6	5.6	0.0	100.0 (18)
비해당	41.1	16.4	16.4	2.7	5.5	5.5	6.8	5.5	100.0 (73)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양육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어린이집(49.3%)과 유치원(32.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12.3%)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희망하는 경우(2.8%)와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경우(1.3%)는 소수였다.

〈표 IV-2-24〉 희망하는 돌봄 방법(전체 응답자 기준)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12.3	49.3	32.3	0.3	1.3	0.8	2.8	0.7	100.0 (600)
거주지역									
읍	13.0	51.4	29.9	0.3	1.5	0.8	2.3	0.8	100.0 (391)
면	11.0	45.5	36.8	0.5	1.0	1.0	3.8	0.5	100.0 (209)
영농가정 여부									
해당	14.0	50.7	29.4	0.0	1.5	0.7	3.7	0.0	100.0 (136)
비해당	11.9	48.9	33.2	0.4	1.3	0.9	2.6	0.9	100.0 (464)

3) 기관이용 시간 관련

아동이 기관을 이용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그렇다(90.6%)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영농가정(81.8%)보다는 비영농가정(93.1%)인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농업인 가정에서는 보육 시간에 대한 요구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5〉 필요한 시간만큼 기관 이용 가능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0.6	9.4	100.0 (540)
거주지역			
읍	89.4	10.6	100.0 (348)
면	92.7	7.3	100.0 (192)
영농가정 여부			
해당	81.8	18.2	100.0 (121)
비해당	93.1	6.9	100.0 (419)

부모들에게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등원 시간으로는 '7:30~8:00'(39.2%)과 '8:00~8:30'(3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8:30~9:00'(19.6%)이라는 응답이었다. '7:30 이전'이라는 응답은 9.8%였으며, '9시 이후'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소수였다. '7:30 이전'의 경우, 영농가정(0.0%)보다 비영농가정(17.2%)이 더 선호하는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시간의 경우 '17:30~18:00'(33.3%)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8:30~19:00'(27.5%), '19:00~20:00'(23.5%)의 순서였다. '20시 이후'(9.8%)에 대한 수요는 면 지역(0.0%)보다는 읍 지역(13.5%)일 경우, 비영농가정(6.9%)보다는 영농가정(13.6%)일 경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6〉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_등원 시간

단위: %(명)

구분	7:30 이전	7:30~8:00	8:00~8:30	8:30~9:00	9시 이후	계(수)
전체	9.8	39.2	37.3	19.6	3.9	100.0 (51)
거주지역						
읍	10.8	40.5	29.7	24.3	5.4	100.0 (37)
면	7.1	35.7	57.1	7.1	0.0	100.0 (14)
영농가정 여부						
해당	0.0	40.9	45.5	13.6	0.0	100.0 (22)
비해당	17.2	37.9	31.0	24.1	6.9	100.0 (29)

〈표 IV-2-27〉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간_하원 시간

단위: %(명)

구분	17시 이전	17:30~18:00	18:00~18:30	18:30~19:00	19:00~20:00	20시 이후	계(수)
전체	9.8	33.3	11.8	27.5	23.5	9.8	100.0 (51)
거주지역							
읍	10.8	35.1	8.1	24.3	24.3	13.5	100.0 (37)
면	7.1	28.6	21.4	35.7	21.4	0.0	100.0 (14)
영농가정 여부							
해당	9.1	27.3	13.6	27.3	18.2	13.6	100.0 (22)
비해당	10.3	37.9	10.3	27.6	27.6	6.9	100.0 (29)

4) 온라인 교육 이용 관련

농촌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온라인 강좌를 지원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을 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0.6%였다. 이는 특히 비

영농가정(68.4%)보다 영농가정일 경우(77.0%) 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8〉 정부 지원 온라인 강좌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70.6	29.4	100.0	(487)
거주지역				
읍	69.1	30.9	100.0	(314)
면	73.4	26.6	100.0	(173)
영농가정 여부				
해당	77.0	23.0	100.0	(126)
비해당	68.4	31.6	100.0	(361)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1순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26.5%)과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25.6%)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가정(영어 23.7%, 놀이 17.5%)보다 비영농가정(영어 27.5%, 놀이 28.7%)인 경우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16.9%)에 대한 전체 수요도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농가정(10.3%)보다는 비영농가정(19.4%)이 수요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14.5%)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비영농가정인 경우(12.6%)보다 영농가정인 경우(19.6%)에 더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9〉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_1순위

단위: %(명)

구분	미술 교육	음악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영어 교육	한글 교육	운동	코딩 교육	계(수)
전체	14.5	7.3	25.6	26.5	16.9	4.9	4.4	100.0 (344)
거주지역								
읍	14.3	7.4	25.8	25.8	17.1	4.6	5.1	100.0 (217)
면	15.0	7.1	25.2	27.6	16.5	5.5	3.1	100.0 (127)
영농가정 여부								
해당	19.6	19.6	17.5	23.7	10.3	3.1	6.2	100.0 (97)
비해당	12.6	2.4	28.7	27.5	19.4	5.7	3.6	100.0 (247)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1순위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영어, 놀이, 한글, 미술의 순서대로 희망 수준이 높았지만, 비영농가정은 영농가정보다 영어·놀이·한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희망하였고, 영농가정은 비영농가정보다 미술 프로그램을 더 많이 희망하였다.

〈표 IV-2-30〉 희망하는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_1+2순위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미술 교육	음악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영어 교육	한글 교육	운동	코딩 교육	(수)
전체	14.5	7.3	25.6	26.5	16.9	4.9	4.4	(51)
거주지역								
읍	14.3	7.4	25.8	25.8	17.1	4.6	5.1	(37)
면	15.0	7.1	25.2	27.6	16.5	5.5	3.1	(14)
영농가정 여부								
해당	19.6	19.6	17.5	23.7	10.3	3.1	6.2	(22)
비해당	12.6	2.4	28.7	27.5	19.4	5.7	3.6	(29)

사. 양육 지원 방안별 요구도

1) 필요성 인식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의 4가지 방안(농촌형 육아도우미, 조기돌봄센터, 시간제보육,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부모들에게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들이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방안은 ‘공동육아나눔터’(조금 필요+매우 필요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조기돌봄센터’(조금 필요+매우 필요 87.5%), ‘시간제보육’(조금 필요+매우 필요 81.8%), ‘농촌형 육아도우미’(조금 필요+매우 필요 74.3%)의 순서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표 IV-2-31〉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필요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불필요	별로 불필요	조금 필요	매우 필요	계(수)
1) 농촌형 육아도우미	8.2	17.5	50.0	24.3	100.0 (600)
2) 조기돌봄센터	2.3	10.2	41.5	46.0	100.0 (600)

구분	전혀 불필요	별로 불필요	조금 필요	매우 필요	계(수)
3) 시간제보육	3.8	14.3	40.5	41.3	100.0 (600)
4) 공동육아나눔터	1.0	9.8	41.8	47.3	100.0 (600)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1순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기돌봄센터’(41.2%)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농촌형 육아도우미’(21.5%)라는 응답이 많았고, ‘공동육아나눔터’(19.5%), ‘시간제 보육’(17.8%)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표 IV-2-32〉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_1순위

단위: %(명)

구분	농촌형 육아도우미	조기돌봄센터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계(수)
전체	21.5	41.2	17.8	19.5	100.0 (600)
거주지역					
경기/강원권	18.3	42.5	19.2	20.0	100.0 (120)
충청권	15.8	48.3	16.7	19.2	100.0 (120)
호남권	26.7	28.3	19.2	25.8	100.0 (120)
경북권	23.3	49.2	20.0	7.5	100.0 (120)
경남권	23.3	37.5	14.2	25.0	100.0 (120)
거주지역					
읍	20.2	42.2	18.4	19.2	100.0 (391)
면	23.9	39.2	16.7	20.1	100.0 (209)
영농가정 여부					
해당	33.1	31.6	19.9	15.4	100.0 (136)
비해당	18.1	44.0	17.2	20.7	100.0 (464)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였을 때 역시 ‘조기돌봄센터’(63.7%)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이었다. 다음으로는 ‘시간제 보육’(44.2%), ‘공동육아나눔터’(41.8%), ‘농촌형 육아도우미’(33.3%)의 순서였다.

〈표 IV-2-33〉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중 가장 필요한 사항_1+2순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농촌형 육아도우미	조기돌봄센터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수)
전체	33.3	63.7	44.2	41.8	(600)
거주지역					
경기/강원권	29.2	64.2	45.8	43.3	(120)
충청권	28.3	61.7	45.0	41.7	(120)
호남권	37.5	60.8	36.7	49.2	(120)
경북권	36.7	67.5	52.5	30.8	(120)
경남권	35.0	64.2	40.8	44.2	(120)
거주지역					
읍	31.7	65.0	45.5	41.7	(391)
면	36.4	61.2	41.6	42.1	(209)
영농가정 여부					
해당	41.9	61.0	50.0	33.1	(136)
비해당	30.8	64.4	42.5	44.4	(464)

2) 긴급·일시 돌봄 방안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위탁할 시 농촌 지역 부모들이 선호하는 양육 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봄’(57.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인근의 소규모 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김’(15.5%),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보미가 자녀를 돌봄’(11.3%),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설에 자녀를 맡김’(11.0%)의 순서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농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62.5%) 영농가정인 경우(38.2%)보다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영농가정인 경우에는 이용 중인 기관 외에도 돌봄센터(25.0%), 이웃(17.6%) 및 돌보미(16.9%) 등에게 위탁하여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4〉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선호 양육 방식

단위: %(명)

구분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보미가 자녀를 돌봄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설에 자녀를 맡김	인근의 소규모 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김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봄	기타	계(수)
전체	11.3	11.0	15.5	57.0	5.2	100.0 (600)
거주지역						
읍	11.8	10.7	16.4	56.0	5.1	100.0 (391)
면	10.5	11.5	13.9	58.9	5.3	100.0 (209)

구분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보미가 자녀를 돌봄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설에 자녀를 맡김	인근의 소규모 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김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봄	기타	계(수)
영농가정 여부						
해당	16.9	17.6	25.0	38.2	2.2	100.0 (136)
비해당	9.7	9.1	12.7	62.5	6.0	100.0 (464)

3) 농촌형 육아도우미

주말(토·일요일)에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위탁할 시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토요일의 경우 시작 시간은 9시(25.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료 시간은 16시 이전(22.1%)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 외에도 더 이른 8시~8시 반(20.6%)에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종료 시간이 더 늦은 16시~17시(16.2%)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일요일에는 육아도우미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51.5%)가 토요일(36.8%)보다 더 많았는데, 필요 시간대에 대한 응답은 토요일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시작 시간은 9시(17.6%), 종료 시간은 16시 이전(20.6%)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5〉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토요일

단위: %(명)

구분	불필요	시작				종료				계(수)
		7시 이전	8시 ~8시 반	9시	10시 이후	16시 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이후	
전체	36.8	4.4	20.6	25.0	13.2	22.1	16.2	11.8	13.2	100.0 (68)
거주지역										
읍	39.1	2.2	21.7	28.3	8.7	26.1	10.9	10.9	13.0	100.0 (46)
면	31.8	9.1	18.2	18.2	22.7	13.6	27.3	13.6	13.6	100.0 (22)
영농가정 여부										
해당	17.4	8.7	30.4	21.7	21.7	26.1	17.4	21.7	17.4	100.0 (23)
비해당	46.7	2.2	15.6	26.7	8.9	20.0	15.6	6.7	11.1	100.0 (45)

〈표 IV-2-36〉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일요일

단위: %(명)

구분	불필요	시작				종료				계(수)
		7시 이전	8시 ~8시 반	9시	10시 이후	16시 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이후	
전체	51.5	5.9	11.8	17.6	13.2	20.6	16.2	5.9	5.9	100.0 (68)
거주지역										
읍	50.0	4.3	13.0	23.9	8.7	21.7	15.2	6.5	6.5	100.0 (46)
면	54.5	9.1	9.1	4.5	22.7	18.2	18.2	4.5	4.5	100.0 (22)
영농가정 여부										
해당	26.1	13.0	21.7	17.4	21.7	34.8	21.7	8.7	8.7	100.0 (23)
비해당	64.4	2.2	6.7	17.8	8.9	13.3	13.3	4.4	4.4	100.0 (45)

새벽에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위탁할 시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6.2%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 중에는 시작 시간은 5시~6시(14.7%), 종료 시간은 8시 반~9시(14.7%)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2-37〉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 시]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_새벽

단위: %(명)

구분	불필요	시작				종료				계(수)
		4시 이전	5시 ~6시	7시 ~7시 반	8시 이후	6시 이전	7시 ~8시	8시 반 ~9시	9시 이후	
전체	66.2	7.4	14.7	10.3	1.5	5.9	11.8	14.7	1.5	100.0 (68)
거주지역										
읍	67.4	8.7	15.2	6.5	2.2	6.5	13.0	13.0	0.0	100.0 (46)
면	63.6	4.5	13.6	18.2	0.0	4.5	9.1	18.2	4.5	100.0 (22)
영농가정 여부										
해당	60.9	4.3	30.4	4.3	0.0	4.3	26.1	4.3	4.3	100.0 (23)
비해당	68.9	8.9	6.7	13.3	2.2	6.7	4.4	20.0	0.0	100.0 (45)

월 평균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이 필요한 일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 평균 5회(16.2%) 또는 10회(16.2%)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회 이하(19.1%)라는 응답 및 20회 이상(14.7%)이라는 응답이 순서대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4회 이상(11.8%)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V-2-38〉 긴급/일시적으로 영유아 자녀 위탁이 필요한 월평균 회수

단위: %(명)

구분	2회 이하	3회	4회	5회	6회	8회	10회	~19회	20회 이상	계(수)
전체	19.1	8.8	11.8	16.2	1.5	7.4	16.2	4.4	14.7	100.0 (68)
거주지역										
읍	23.9	13.0	6.5	15.2	2.2	6.5	17.4	2.2	13.0	100.0 (46)
면	9.1	0.0	22.7	18.2	0.0	9.1	13.6	9.1	18.2	100.0 (22)
영농가정 여부										
해당	13.0	0.0	26.1	4.3	4.3	8.7	30.4	8.7	4.3	100.0 (23)
비해당	22.2	13.3	4.4	22.2	0.0	6.7	8.9	2.2	20.0	100.0 (45)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자녀의 연령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장 높은 수요가 있었던 연령 구간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까지’(42.6%)였다. 그 다음으로는 ‘0-35개월까지’(26.5%)였으며, ‘만5세 이하까지’(23.5%)라는 응답도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까지’(7.4%)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교적 소수였는데, 이 경우 면 지역(0.0%)보다는 읍 지역(10.9%)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9〉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자녀 연령

단위: %(명)

구분	0-35개월	만5세 이하	초등 1-2학년	초등 3-6학년	계(수)
전체	26.5	23.5	42.6	7.4	100.0 (68)
거주지역					
읍	26.1	23.9	39.1	10.9	100.0 (46)
면	27.3	22.7	50.0	0.0	100.0 (22)
영농가정 여부					
해당	21.7	26.1	47.8	4.3	100.0 (23)
비해당	28.9	22.2	40.0	8.9	100.0 (45)

3. 농촌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자 면담 분석

농촌에서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자를 면담하고 운영 현황과 사업의 애로점, 개선 방안과 농촌 보육에 대해 제시하

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다양한 유형 즉, 지역아동센터, 여성농어업인지원센터, 어린이집의 3개 형태의 기관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가. 지역아동센터: K시 N면 “S지역아동센터”

1) 현황

‘S지역아동센터’는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독립 2층 건물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복도 공간이 있고 이를 가운데 두고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공부방 및 센터장, 사회복지사 2명, 실습 인력 1명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 3명의 조리사가 일하는 조리실, 화장실이 둘러 서 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비교적 넓은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피아노 6-7대를 비롯해 각종 타악기, 현악기 등 악기 연습 공간 및 무대 공간이 있다.

현재 총 23~24명 가량의 아동이 이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번기 주말아이돌봄방 이용자인 영유아 4명 외에 초등생, 중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특징

센터 건물은 입구에 여전히 “도농교류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센터장의 설명을 따르면, 아동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해당 건물은 폐건물로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동센터 설립을 위해 건물을 완전히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농교류센터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전국에 여러 곳에 설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이 끝나서 모두 버려진 빈 건물이 되었어요. 이런 빈 건물을 찾아서 아동센터나 농번기돌봄방으로 활용하면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농촌엔 빈 건물이 많거든요. ...이렇게 건물 수리해 놓으니 너무 좋지요? 전국 어디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아동센터 못 보실 거예요. 다른 센터도 우리만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센터장 면담)

아동센터의 특징으로,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아이들의 활동, 지역 교류, 악기 구매 및 음악교육(전문가 재능 기부 포함)에 힘을 쓰고 있는 점, 지역 어르신들이 조리원으로 참여하는 점, 센터를 거쳐

간 아동이 대학생,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자랑하였다.

지역 특징으로 센터가 S시와 U시의 경계에 위치하여 대도시인 U시로 이주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대부분 아동들은 방과 후에 학원 버스를 이용하여 센터로 오고 귀가는 부모가 차량으로 데려간다고 하였다.

[그림 IV-3-1] S지역아동센터 환경



출입구



내부 활동실

3)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영유아를 포함하여 초등생 아동이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20여명 아동 중 다문화가정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고 센터장은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사 2명이 번갈아 가며 주말 근무를 하고 있어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거의 휴일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업 관련 요구로서, 사업 기간은 현재 6개월이나 실제로는 부모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더 길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최소 9~10개월은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농촌의 농사가 다양화되면서 농번기가 일정하게 정해지기 힘들게 되어,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한기에도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부모들이 많아 이 분들은 사업 운영 기간이 아닌데도 애들을 꼭 봐주셔야 한다고 사정하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센터장 면담)

차량 운행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하여 새롭게 마련할 여유가 없는 문제도 있고 특히 차량동승도우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건비 측면에서 이 기준을 맞추는 수가 없어 차량 운행은 어렵다고 하였다.

차량 운행을 하려면, 차 타고 나가는 사람과 그 시간에 센터에 남아서 애들을 돌보는 인력까지 해서 최소 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렵고 하기에...(센터장 면담)

아동 수가 적거나 인력 부족, 차량운행, 사업 기간의 연장 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말 거점 아이돌봄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4) 농촌 보육지원 모델 안¹¹⁾ 관련 의견

가) 차량환승센터/조기보육스테이션 운영 가능성

두 가지 방안 모두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센터 내부 인력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파견 인력 지원이 최소 1~2명이 있어야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설치한 도농교류센터 중 황폐화된 건물이 많은데, 이러한 건물들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 농촌 육아도우미 제도 도입 안

지역 내 육아도우미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 센터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만일 도우미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특히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시간이 많이 할애 되어야 하고 기존 교육 경험이 이나 사전 지식이 있다면 간단한 재교육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11) 본 연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해당 농촌보육 모델 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장 방문 조사에서는 개략적인 농촌 보육모델 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안

현재 S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스르기사랑나눔회”라는 단체가 주관한 ‘KB라스쿨’ 공모에 선정되어 국영수 위주로 아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지원받고 있어 잘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들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아동이 개별로 가정에서 혼자 참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공하고 도움 인력이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여성농업인센터: J시 A읍 “A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

1) 현황

A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는 A읍의 외곽 국도변에 위치하여 차량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단층 독립건물로서 마당이나 공간이 넓은 편이다. 실내는 넓은 하나의 교실 형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에 컴퓨터와 책상을 두고 센터장과 사무장이 업무를 보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나의 넓은 마루와 같은 공간에서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 등이 나란히 꽂혀져 있다. 돌봄방 아이들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지는 않았다. 센터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아이들은 많은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최대한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IV-3-2] A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 환경



출입구와 외관



내부 활동실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및 보육적 요구

사업 진행 기간은 6개월로 6월~11월 기간 동안 돌봄방을 개설하고 있고, 초등학교 아동까지 모두 14명 정원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은 편이었다. 지역특성상(감굴 농사 등으로) 12~1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의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였다.

돌봄방은 돌보미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 과학교육원 등 지역문화탐방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센터 교육 활동의 참여자 재능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예: 한국무용, 복놀이, 민요, 밴드 등) 또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돌봄방 운영의 애로점으로는 차량 운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차량이 있음에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센터장은 S시 출신의 토박이로서, 지역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주민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우도 돌봄보다는 농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는 과정을 기대하면서 간접적인 부모 교육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에서 필요한 육아 지원 사업으로서 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 등의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농촌 보육지원 모델 안 관련 의견

가) 차량환승센터/조기보육스테이션 운영 가능성

센터장은 면담에서 해당 모델 안은 적절한 장소만 제공된다면 실효성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관리체계 충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A센터는 차량운행이 되지 않고 위치 등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육아도우미 파견 사업 안

지역 내 육아도우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센터에서

시간제(일 5시간)로 지역 내 육아도우미(60대, 현장 근무 경력 있음)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어, 하고자 하는 인력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일을 어렵게 여기고 꺼리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센터 등 별도 공간에서 돌봄이 제공된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인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 어린이집: S시 A면 “H어린이집”

1) 현황 및 특징

H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운영을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개인 소유 민간 시설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겪었고, 지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면서 이용 아동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되어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롭게 입소하는 아동이 없고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만 돌보고 있으며 원장과 교사 1인만이 근무하는 상황이다.

건물은 단독 어린이집 건물로 규모가 큰 편이며, 차량, 주차장, 바깥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조용하고 외딴 위치이고 3-4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깔끔하고 조용한 마을 집들이 모여 있다. 자연 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은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농번기아이돌봄방 운영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은 연간 9개월(3~11월) 동안 진행되고 있고 유아반 4명, 초등반 9명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충실한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자동차 유류대 및 냉난방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구체적으로 면 거주 아동 10명, 읍 거주 아동이 3명이고 이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4명이다. S시라는 관광지역 특성 상 식당에 근무하는 부모들이 많고, 이들의 경우 휴일에 더 바빠 주말 돌봄방 이용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신경을 쓰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신체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지역축제 참여, 키즈카페 방문 등을 들었다.

그러나 주변 국공립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설치로 인해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

고 있는 추세이고, 읍지역에 학원 등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차량으로 25~30분만 이동하면 아동이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 주말이 아닌 일반 일정에 H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V-3-3] H어린이집 환경



H어린이집 외관



출입문

부모들의 보육 관련 요구를 보면, 주말돌봄방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연중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감귤, 파 등 계절이 독특한 J도의 농업 가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광지 사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필요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 농촌 보육지원 모델 안 관련 의견

가) 차량환승센터/조기보육스테이션 운영 가능성

어린이집(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H어린이집 또한 수요가 있다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나) 육아도우미 파견 안

60대의 경우 도우미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우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이 지역에 있으므로, 육아도우미의 근무 처우 수준이 높다면 이러한 인력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즈음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그걸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기들을 돌보는 아동학대 문제 등으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를 선호하지, 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도우미는 안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육아도우미의 급여나 처우가 요양보호사보다 낮다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원장 면담)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제안

- 01 농촌형 보육 개선 안 마련의 필요성
- 02 긴급·일시 보육 모델 I : 농촌형 육아도우미
- 03 긴급·일시 보육 모델 II : “육아파트너가정”
- 04 농번기 틈새 보육 모델: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 05 일시 돌봄 대체 모델: 농촌육아(실내)놀이터
- 06 농촌 아동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V.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제안

1. 농촌형 보육 개선 안 마련의 필요성

농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 개선 필요 사항으로 꼽은 항목이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라는 점이었다.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10% 이하로 동의율을 보였으나 해당 항목은 27%가 1순위로 꼽아 독보적인 육아 관련 욕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면지역이든 읍지역이든 대부분 가장 높은 비율로 긴급하게 보육을 부탁할 곳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가까이에 친인척이나 부모, 지인 등 잠시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우선 요구되는 것이다.

긴급 및 일시 보육 외에 또 다른 보육 관련 요구 특징으로서, 이른 아침 시간(7시 30분 이전)이나 저녁 시간(6시 30분 이후)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 점이 있다. 부모 면담에서 농번기 동안 오전 이른 시간과 5시 이후 연장 보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 수 부족으로 오전/오후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10%가 7시 30분 이전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영유아 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 농촌에서 그들의 근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종일이라고 답한 경우가 12% 이상으로, 이른 조기 보육, 연장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된다. 필요 기간이 연중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주목해야 할 보육 측면의 요구임은 분명하다.

그 외에도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체험이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도시 아동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갖는 데 있어 소외될 수 있음에 대한 불안 등을 표출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 또한 농촌의 영유아를 및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고 영농가정의 경우 특히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에 대한 어려움도 제시하고 있었다. 영유아 양육 가정의 절대 수가 적은 농촌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고립되고 단절된 환경 속에서 단독 육아를 하고 타 가정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힘든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와 같은 보육과 양육의 개선에 대한 요구 외에도 의료시설의 태부족이나 육아물품 구매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주제이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영유아 가정의 요구에 근거하고, 선행연구 및 국내외 보육지원 제도의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농촌 맞춤형의 보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긴급·일시적 보육 서비스 제공 방안, 조조 보육 지원 방안, 농촌 아동을 위한 교육적 콘텐츠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2. 긴급·일시 보육 모델 1: 농촌형 육아도우미¹²⁾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농촌 지역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서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농촌형 보육인력을 양성하여 가정으로 파견하는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 돌봄의 공백에 대응하는 보육 및 돌봄서비스는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화한 방식이 제공되어야 하나,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의 영유아 인구 규모는 6.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기관돌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긴급한 경우 일시연계 방식으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양성하여 긴급하게 일시적으

12) 본 사업의 주관 부처가 될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농촌 육아도우미 사업의 현장 즉시 적용을 위한 사업 실행 지침 방식으로 모델을 작성함.

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농업인의 경우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해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선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자녀를 둔 농업인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으로는 농촌형 육아도우미가 33.1%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해당 수요는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조기돌봄센터(전체: 41.2% 영농가구: 31.6%)보다도 선호되었다. 게다가 현재 영유아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15.2%인데, 이들 중 농업인가정(N=91)에서 희망하는 양육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가 11.1%와 5.6%로 나타나서 부모의 직접돌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육아도우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가정내보육서비스(가정파견형 돌봄인력)를 지원하여 가정내양육을 선호하는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다.

나.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식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의 사업 주체와 운영 방식은 농촌 지역의 여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다음의 추진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동 사업은 ‘국정과제(70-1) 농촌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촌형 보육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며, 사업 운영은 전국지역의 조직(본부 및 지부)을 갖춘 농협에서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아동은 가정내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초등 2학년 이하로 한다. 앞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에서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자녀 연령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까지가 42.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반면에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은 7.4%에 그쳤기 때문이다.

돌봄인력은 농촌 지역의 유흥인력을 위주로 모집하고, 가정파견형 돌봄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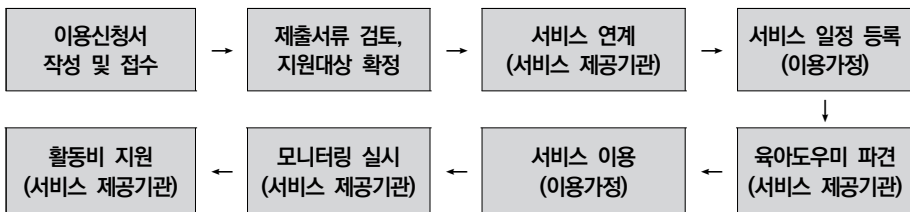
다. 운영 모델

1) 사업내용

가) 이용 신청 및 절차

육아도우미 신청 가구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연계를 요청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읍면동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확인받아 신청 가구의 등록을 처리한다.

[그림 V-2-1] 농촌형 육아도우미 이용 신청 및 절차(안)



나)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일수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하루 기준으로 최대 8시간, 최소 2시간 이상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앞서 살펴본 농업인의 육아도우미 필요 시간대를 반영하여 평일 기준으로 오전 6시~오후 8시로 한다. 앞서 설문 조사에서 영농가정의 경우 오전 6시 이전에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에 달하고, 오후 8시 30분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2%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업인가구에 82.6%와 73.9%로 높게 나타나므로 주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로 한다. 농업인의 경우 오전 7시 이전에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토요일 8.7%, 일요일 13.0%이고, 오후 7시 이후에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와 8.7%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지원일수는 월평균 10회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율이 43.4%임을 반영하여 연간 최대 120일을 고려할만하다.

다) 서비스 내용

농촌형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활동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즉, 육아도우미의 주요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성범죄 등 신고의무 등으로 한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비롯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수행한다.

시간제 서비스(기본형)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등이다. 외부활동은 제한되며, 단, 이용가구와의 협의를 통해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시에 동행할 수 있다.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이외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척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및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상의 모든 활동에서 육아도우미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이용가정에 전달해야 하도록 규정한다.

라)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국비로 지원하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국고에서 70%, 나머지 30%는 이용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시간당 단가는 10,0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비에서 7,000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000원을 이용가구에서 부담한다. 또한 아동 수, 심야 및 새벽, 주말의 시간당 단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체계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부과하고 가산된 이용료는 전액 이용가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아동수에 따라서는 기본 시급 10,000원의 50%를 적용하여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즉, 아동수가 2명인 경우는 5000원, 3명 이상인 경우는 10,000원을 추가하여 이용가구에서 부담한다. 심야 및 새벽과 주말에는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된다. 종합형서비스의 경우는 기본 시급의 30%를 가산한다.

〈표 V-2-1〉 농촌 육아도우미 사업 비용지원 체계(안)

이용요금(시간당)			육아도우미 교통비 1회 20,000원 (국비 지원) ※ 교통특례지역 : 할증 (최대 10,000원)
이용단가	국비지원	본인(이용가구) 부담	
10,000원	7,000원	3,000원	
※ 월 40시간 구비지원 지원시간 초과 시 10,000원 자부담(최대 12시간)			
할증요금(시간당)			
아동수	기본	심야, 주말	
1명	0원	5,000원	
2명	5,000원	10,000원	
3명	10,000원	15,000원	

주: 할증요금은 전액 이용가구에서 부담,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심야는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 까지 기준

2) 지원대상 및 요건

농촌에 거주하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¹³⁾

3) 사업 추진체계

사업은 농협중앙회(지역사회공헌부)에서 수행하며, 지역본부(16개)와 시군 지부(158개)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 지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 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3) 2023년 기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함(경상남도, 2023,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그림 V-2-2]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체계(안)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년도 8~9월	▶ 신청·접수계획 통보(농식품부) → 접수결과 농식품부 제출(시도)
②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전년도 10월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기관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③ 지침 통보	1월	▶ 사업시행 지침 통보(농식품부)
④ 사업추진	연중	▶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서비스제공기관 등)
⑤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 추진 현황 점검 및 보고(시군) ▶ 다음연도 추진 계획 수립·추진(시도)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도):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⑦ 사후관리	매년	▶ 사후관리

[그림 V-2-3]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안)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사업시행 지침 하달	〈도→시군→읍면동〉 전년도 12월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비 집행 등, 사업 홍보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1~2월	▶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주민등록번호 오류 검증 철저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읍·면·동장〉 2월	▶ 실제 영농종사 여부 및 경영체 등록 확인 ▶ 사업자 등록·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및 중복제외 사유 확인
대상자 확정	〈시장,군수〉 3월	▶ 대상자 확정, 읍·면·동장 및 시스템 명단 등록 - 최종 대상자에게 지원 확정 통보 및 안내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3월	▶ 사업비 교부
농촌형 육아도우미 이용료 지급 완료	〈도·시군·농협→사업대상자〉 연중	▶ 대상자 등록 및 교부 ▶ 전산자료 관리 등
사업비 정산	〈시군→도〉 다음연도 1월	▶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사업 추진 주체별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 평가 및 홍보를 담당한다. 시·도는 사업지역의 선정 및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감독,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홍보를 담당한다.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위탁기관(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의 선정 및 관리·감독,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홍보를 담당한다. 읍면동에서는 사업 안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를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육아도우미 모집 및 채용관리, 활동 수당 지급, 서비스 연계 지원(이용가구,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대상 가구 확인, 안전사고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실적 통계 등을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보고한다. 시·군 단위의 지정 교육기관에서는 농촌형 육아도우미 신청자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이상의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V-2-2], [그림 V-2-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 육아도우미 양성 및 관리

가) 육아도우미 신청 요건 및 선발

농촌형 육아도우미는 앞서 다룬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보미 신청 자격을 준용한다. 육아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육아도우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을 거치고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나) 육아도우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육아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0시간(시수 2안 기준)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 교육과정 및 과목별 시수는 <표 V-2-2>와 같다.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격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의 경우는 A코스(4시간)와 B-3교과목(4~6시간)만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총 8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교과과정은 ‘아동학대 및

예방교육' 4시간, 안전관리 2시간, 아동과의 상호작용 2시간으로 구성한다. 보수교육은 양성교육기관에서 병행하여 실시한다.

〈표 V-2-2〉 농촌형 육아도우미 양성교육과정(안): 교과목 및 시수(안)

코스	교과목	시수 (1안)	시수 (2안)
A.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이해	A1. 사업 안내: 사업 목적 등 이해	1	1
	A2. 육아도우미 활동수칙/이용가정과의 소통	3	3
	소 계	4	4
B. 아동의 안전· 건강관리	B1. 안전관리(응급처리 포함)	2	4
	B2. 건강관리 (이유식, 식습관 지도, 질병감염아동 보호 포함)	2	4
	B3. 아동권리의 이해와 학대 예방 (성인지/장애아동의 이해 및 인식 개선 포함)	4	6
	소 계	8	14
C. 아동 발달의 이해와 실제	C1. 영아 발달 및 돌봄의 이해와 실천	8	8
	C2. 유아 발달 및 돌봄의 이해와 실천	4	6
	C3. 학령기 아동 발달 및 돌봄의 이해와 실천	4	4
	소 계	16	18
전체		28	40

다) 육아도우미 활동 정지

육아도우미의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활동 및 자격 정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여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5) 서비스 연계 및 지원기관

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역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하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력배치 기준과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들 기관의 주요 역할 및 업무 내용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농촌형 육아도우미: 모집 및 채용 관리(결격사유 확인 포함), 근로계약 체결

및 등록, 활동 수당 지급, 보험 가입,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징계, 육아도우미 DB 관리 등

- 서비스 연계 및 이용자 관리: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안전사고 관련 전담인력-부모(보호자)-아이돌보미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이용자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등

나)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시·도지사는 지역 내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규기관은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공모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하고, 공모 시의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한다. 지정 유효기관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의 신청 및 심사와 지정기관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정 교육기관의 사업 담당자 1인 인건비와 육아도우미 관리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5) 이외 운영관리 사항: 이용가정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사항

농촌형 육아도우미 이용가정에서 서비스 이용 시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서비스 신청 시에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즉,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의 사유별 제한 기간 등(이용자 준수사항 및 공지, 이용 제한 사유 및 조치사항 및 절차)을 사업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라. 도입 시 고려사항: 사업 중복 및 관련부처 협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유관 사업과의 차별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연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 중복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목적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차별화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 농촌 지역의 아동 돌봄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일상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영유아를 둔 농업인가구에게 주말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돌봄 인프라로서 가정으로 돌봄인력이 파견되는 서비스와는 그 성격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 유관 부처 협의 및 협력사항

농촌형 육아도우미 지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 등과 서비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에서 준용할 사항이 많고, 교육기관 등에서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 및 부서(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력 사항에 관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V-2-3〉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관련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 9. 27. 인출)

3)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농어촌 육아도우미를 국비로 100%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하며,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여성농업인의 보육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표 V-2-4〉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관련 근거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 9. 27. 인출)

〈표 V-2-5〉 농촌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관련 근거 규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1. 11. 30.>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3. 17.]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 9. 27. 인출)

3. 긴급·일시 보육 모델 II: “육아파트너가정”

가. 내용

앞서 해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보육지원 방안(본 보고서 3장 참조)이다. 일정 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육아파트너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pool)을 만들어 두는 제도이다. 농촌의 영유아 가정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적절한 육아파트너가정이 매칭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영유아 부모는 맡길 자녀를 육아지원가정으로 데려다 주고 시간이 지나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 운영 방법

육아파트너가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영유아 또는 초등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농촌 가정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육아파트너가정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진다. 일상적인 보육이 아닌, 예기치 않은 상황(예를 들면, 부모의 긴급한 병원 진료, 긴급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마주했을 때 아이를 잠시 혹은 최대 8시간(상호 협의 후 확정) 동안 맡길 수 있는 보완적 보육지원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이웃을 활용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지자체(혹은 지역 단위 농협)에서 육아파트너가정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가정을 각각 pool에 등록을 해두고 필요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각 신청 회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상 정보(연락처, 주소, 연령, 직업, 주민등록상황, 소득, 신청 이유, 희망 시간 등)를 확보하고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신청자와 지역이 근접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

육아지원가정은 우선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마을 부녀회, 마을 청년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육아지원가정이라면 품앗이의 개념으로 상호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의사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지역 상품권 제공, 농협 금리 우대 등 소정의 사례가 주어지는 것도 고려할 만다. 물론 완전한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고 돌보아 주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이용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사한 봉사이기 때문에 지원 시간이 되는 가정에서는 부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사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육아지원가정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3일 간 9시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내용 또한 기본적 영유아 돌봄, 놀이 방법,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1회씩 정기적으

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을 지자체(시군구)에서 섭외하고 진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교육은 연간 2~3회 신청자 수요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3-1〉 육아파트너가정 대상 교육 방법

구분	내용
교육시간	3일간 각 3시간씩 총 9시간
(필수) 교육내용	영아 및 유아 돌봄의 기본 놀이 방법 안전 및 위생 아동학대 예방
재교육 주기	연 1회
교육 주관	사업 관리 주체(지자체 혹은 지역농협 등)
교육 운영 방법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역으로 초빙, 일정 장소에 강의. 교육 수요 발생 시 연간 2-3회 정기 실시, 수료증 발부.

육아파트너가정은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보아 주는 이웃 개념의 접근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정에 영유아나 초등 아동을 위한 놀잇감, 육아 관련 물건을 구비해놓을 필요는 없고,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가정에서 부모가 해당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간식, 기저귀, 옷, 놀잇감 등)을 모두 지참하여 육아파트너가정에 제공해야 한다. 이용 비용은 수익자(이용자)와 정부(국비 및 지방비)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기관보육서비스인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비용과 일본의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여 시간당 최저 비용을 책정하였다 (표 V-3-1참조).

〈표 V-3-2〉 육아파트너가정 서비스 이용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이용 시간	평일 및 주말 07:00 ~ 20:00	1일 최대 8시간 (이용자 간 협의 가능) 어린이집 등 기관 다니는 아동이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기관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역할 포함.
이용 비용 ¹⁾	시간당 6,000원	국비/지방비 지원 60% + 이용자 부담 40% 주말은 추가 비용(시간당 1000원+)
이용 요건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은 부모가 제공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방식 원칙
이용 방법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지역농협)	육아파트너가정(서비스 제공자)은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지역농협)에서 면접 후 등록

1) 시간당 비용은 일본의 동일한 서비스 이용 비용(600엔)과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중 ‘시간제보육’ 이용료(시간당 4,000원)를 참조하여, 개인의 집 공간을 빌린다는 점, 직업적인 돌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육아파트너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기관이 포함되고, 주관 기관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

〈표 V-3-3〉 육아파트너가정 제도 운영의 구조

담당 기관	담당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계획 및 평가 사업 온라인 플랫폼 설치 지원 이용 비용 지원 (30%) 서비스 제공자 교육비용 지원
지자체(시군구)	서비스 제공자 교육 실시 (지역농협과 협력 가능) 지역 내 단위 농협 사업 관리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신청 플랫폼 설치 이용 비용 지원: 사도 예산 (30%)
지역 단위 농협	사업 참여자 모집 이용자 및 제공자 pool 구성 서비스제공자 서류 접수 및 면접 신청 플랫폼 관리 서비스 신청자와 제공자 매칭 교육 관리

4. 농번기 틈새 보육 모델: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가. 제안의 배경

농촌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는 대부분 주양육자인 모(어머니)의 일일 근무 시간을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종일’이라는 응답이 12.3%에 달한다. 전체 설문 응답자 모 중 12.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영농가정 영유아 모 11%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적지 않은 농촌 가정에서 자녀를 어린이집 등원보다 더 이른 시간에 부모가 일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일정 기간(농번기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 아침 아이를 돌보아 주는 곳이 있다면, 특히 농번기와 같은 시기에 조기 아침보육(“조조(早朝)보육”으로 칭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농촌, 농업가정의 어린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을 때 ‘조기돌봄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설문 조사에서 가

장 높은 비율로 지지되었고 면담조사에서도 다수가 필요하다는 데 선뜻 동의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9.8%가 7시30분 이전부터의 돌봄을 원했고 40% 가량이 8시 이전 보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재 농번기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의 시설장들도 이러한 조조 보육의 수요를 인정하고 지원이 있다면 조조보육을 운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었다. **조조보육과 만석보육은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저녁 시간 보육은 조조보육과 시간적으로는 반대가 되나 기능면에서는 동일한 모델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원칙상 7시 30분까지,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을 통해 최소 5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수가 충분하지 못한 농촌의 경우는 전담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도 운영이 쉽지 않고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동일한 시간에 하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아동들의 귀가가 부모의 근로 종료 시간 대비 앞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영농가정 기준 근로 시간이 특별히 길다고 볼 수 있는 농번기 동안 오후 4~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을 “만석(晩夕)보육” 모델로 본다.

나. 운영 모델

1) 정의

‘조조보육’이란 농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등원, 등교를 시작하는 정규 시간 이전 이른 아침 시간(오전 6시 30분 ~ 8시 30분 사이)에 문을 열어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2학년 이하) 아동을 돌보아 주는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아동이 원래 다니는 기관이나 학교의 셔틀버스가 해당 센터로 아이를 태우러 오는 시간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 만일 조조보육을 진행하는 시설에 사용 가능한 차량이 있고 아동의 원 기관(유치원, 학교 등) 셔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조조보육 서비스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아동을 등원, 등교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조조보육 센터까지는 부모가 데려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석보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연장보육이 없는 어린이집 아동의 정규 보육교

육 시간 이후부터 부모 근로 종료 시간까지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하고, 아동이 등록된 원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만석보육센터로 와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부모가 데리러 센터로 오거나 자체 운행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귀가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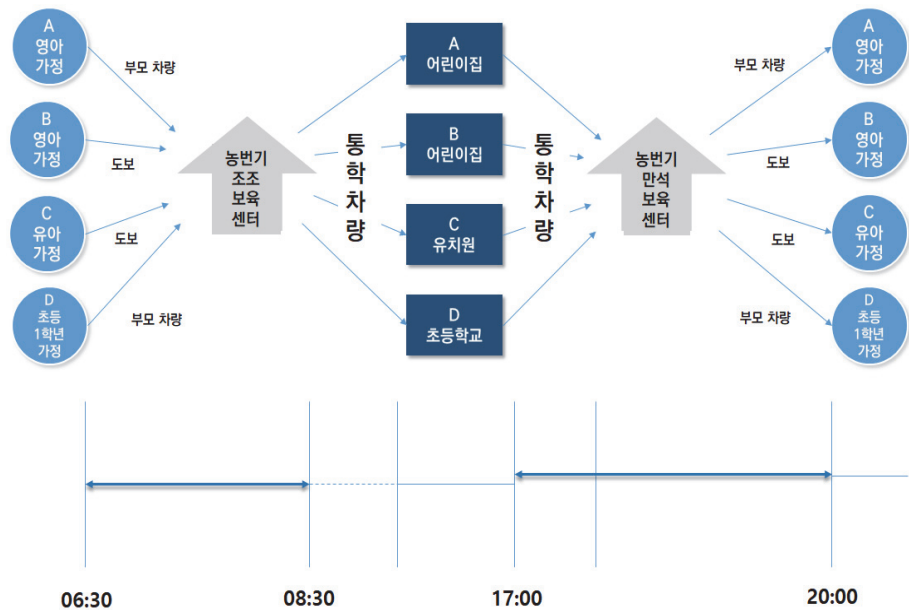
2) 내용

현재 ‘농번기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 집에서 조조 및 만석 보육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아동 보육을 위한 환경과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조조·만석 보육 운영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조조보육은 기존 농번기아이돌봄방의 기능확대 모델이다. ‘농번기아이돌봄방’은 지역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 여성농어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4~8개월 동안 농번기에 일일 최대 10시간 동안 초등 2학년까지 아동을 주말 동안 돌보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가야 하는 아동에게 이른 아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주말돌봄방 운영자들은 모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일반 어린이집은 원칙적 운영시간이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이고 부모 수요가 있을 때 시간을 채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어린이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적어 1~2명 수요를 위해 7시 30분부터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본 연구 부모 면담 결과). 그러나 농어촌의 특성상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는 매우 이른 시간부터 부모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른 출근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등원버스가 아동을 태우기 위해 오는 오전 8시~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돌봄의 틈새가 되고 있다.

[그림 V-4-1] 농촌 농번기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 이용 체계도



가) 농번기아이돌봄 어린이집에서 조조 및 만석 보육을 제공할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되는 기본보육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이나 오전 7시 30분-9시 사이의 아침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칙적 운영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추가 인건비나 보육료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한다¹⁴⁾. 또한 07시 30분 이전 보육은 ‘야간연장보육’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추가 보육료 지원과 인건비 지원(단시간 연장반 교사 혹은 근무 수당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중 야간연장보육 부분 참조). 그러나 실제로 야간연장보육은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체제인데, 영유아 수가 희소한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조조보육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원 사업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다. 하나의 읍/면 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운영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을 조조아이돌봄센터로 정하여 이곳에서 주변 아동들이 모두 이용하는 조조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4)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77.

나)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혹은 신규 센터에서 조조보육 운영 시

해당 기관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농번기아이돌봄방 사업과 동일한 취지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틈새 보육 서비스로서 작동할 수 있다. 즉, 일일 2시간 이상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현행 농번기 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설 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한편, 조조돌봄과 만석돌봄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농촌의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예를 들면, 활용되지 않는 공공건물, 도농교류센터 건물 등), 시설을 개조하여 지자체 주관 하에 농번기아이돌봄센터와 같이 돌보미를 고용하고 조조돌봄과 만석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는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조조돌봄과 만석돌봄은 둘 모두를 실시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운영, 또는 이용할 수도 있다.

〈표 V-4-1〉 농번기 조조 및 만석 아이돌봄센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시설 명칭	농번기 ○○ 조석아이돌봄센터(가칭)
설치 조건	-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혹은 어린이집 중 조조 및 만석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 - 수요가 있는 읍/면 중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어린이집에 조조 및 만석보육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시설에 한해 가능함.
대상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농어민 자녀 포함 의무.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도 이용 가능
운영 기간	연간 4개월 ~ 6개월 (※ 조조보육과 만석보육 전용 시설인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돌봄 시간	조조보육 06:30 - 08:30, (주 5일 원칙) 만석보육 17:00 - 20:00 ※ 조조와 만석 보육 전부 혹은 한 유형 선택 운영 가능
지원	- 운영비 지원: 돌보미 인건비, 급식비, 도서, 장난감구입비 등 국비50%+지방비50% (농번기아이돌봄방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필요) - (신규 설치 시설) 시설 개조비 지원: (지자체 건물일 때) 국비 100%
돌봄 내용	- 간단한 급식 또는 간식 제공, 독서 활동, 개별 자유놀이, 휴식 등 - 원 소속 시설, 학교 셔틀 차량 이용 지도, 가정양육 아동의 경우 부모 통한 귀가
인력	- 전담 돌보미 채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에서 사업 확장한 경우, 시설장에 운영 책임이 있으나 시설장 상시 근무 의무는 없으며 주 2시간 이상 근무 요건

5. 일시 돌봄 대체 모델: 농촌육아(실내)놀이터

가. 필요성 및 정의

농촌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이나 놀이를 함께 함과 동시에 지역내 부모 간 육아 정보의 교류, 긴급한 1-2시간의 일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농촌육아놀이터 설치를 고려해볼 만하다. 본 연구의 조사와 면담 결과를 보면,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대신 돌보아줄 사람이나 맡길 곳이 없다는 점과 부모 간 교류가 없어 정보가 부족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 등이 주요하게 드러나 있다(본 보고서 4장 내용 참조). 이러한 부모의 요구에 근거하여, 농촌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농촌육아놀이터(가칭)”, 즉 일종의 공공키즈카페의 설립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된 일명 키즈카페는 영유아, 초등저학년 아동을 둔 부모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육아 보조 장소 중 하나로,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기구를 구비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돌봄 보조 인력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거나 지도함으로써 부모가 잠깐의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개념의 도시 공간을 농촌으로 들여왔을 때 좀 더 일시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농촌 지역 부모 간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의 육아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촌육아놀이터’의 개념이다.

나. 추진 방법

1) 입지

실내 놀이 공간인 농촌육아놀이터는 무엇보다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가기가 편리하며, 시장이나 상가, 병원 등 상업, 업무 시설이 가까이 있어 부모가 잠시간의 일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도 적절하다. 그러므로 읍이나 면소재지에 있는 공간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설 및 인력

시설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적 환경이 구비된 **안전성**이다. 놀이기구는 영아용(만1~2세)과 유아용(3~5세) 공간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별도로 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부모가 옆에서 놀이를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넓이의 공간이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앉아 있는 휴식 공간에서도 놀이하고 있는 아이들을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놀이기구와 놀이감은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적은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청결**, **위생**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가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 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상근 **관리책임자** 외에 인근의 도시나 해당 지역 거주민, 대학생 등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청소, 안전 관리 실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촌육아놀이터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일시 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자 최소 1인과 추가적인 돌봄도우미 인력이 채용되어야 한다. 면적이나 동시 이용 가능 인원 규모에 따라 최소 필요 인력의 수는 정확히 산출되어야 할 것이고 법정 근로 시간, 인건비 등에 대한 적정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가 급할 때 자녀를 한두 시간 맡겨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력 있는 보육교사 자격자가 상근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별 발달에 적절한 놀이와 놀이기구 사용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으며 특히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키즈카페 사업 기준을 참조해보면, 키즈카페를 이용 중인 아동 10명당 1명씩의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키즈카페는 3세 이상 만 7세 초등학생까지가 이용 가능 아동이므로 본 농촌 육아놀이터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농촌육아놀이터에서는 1세(18개월) 이상 5세까지 영유아가 이용 가능하므로 보다 촘촘함 영유아 대 성인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설치비, 관리·운영비, 인건비(관리책임자, 놀이기구관리자, 위생·환경관리원, 보육교사, 돌봄도우미 등)에 대한 지원을 5:5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맡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 V-5-1〉 농촌육아놀이터 사업 방안

구분	내용
시설 명칭	(가칭) OO지역 육아놀이터
설치 조건	- 읍 또는 면소재지 - 공공기관, 상업지역, 의료기관 등 인근
이용자	만 18개월 ~ 만 5세 영유아 및 부, 모, 어린이집 교사 등 보호자
운영 기간	상시
이용 시간	주 5일(예시.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00 ~ 오후 18:00
지원	- 시설 설치비 지원: 공공 부지 및 건물 이용, 실내놀이터 시설, 설비 구비비 - 인건비 지원: 시설장, 관리요원, 보육교사, 돌봄 인건비 - 운영관리비: 시설 환경 유지비 ※ 국비50%+지방비50%로 지원 (이용 비용 수익 활용) ※ 지자체는 놀이터 구성과 운영에 대해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놀이기구, 환경 등이 영유아 교육, 돌봄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설치
이용 비용 ¹⁾	- 시간당 3,000원(이용자 부담)
이용 시간	- 주 5일 화~토, 09:30~17:30 이용
이용 방법	- 이용 해당 시간 이전까지 예약을 통해 입장토록 함. - 입장 가능 영유아 수를 돌봄 인력 근무자 수, 면적에 따라 시간 당 제한을 둠.
시설 및 인력 구성	- 1인당 7m ² 면적 기준 - 보육교사 1명 이상 채용 필수 - 영아 5명당 관리요원 1명, 유아 10명당 관리요원 1명 상시 근무 - 시설관리책임자(시설장) 1명 상근
일시 돌봄	- 보육교사 및 돌봄지원 인력이 놀이터 이용 시간 내 돌봄 - 부모당 일일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호자인 경우 제외) - 놀이터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음.

1) 이용 비용, 시간, 시설 운영 규정 등은 "서울시 공공키즈카페" 운영 기준 준용함.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3173?tr_code=sweb 참고

6. 농촌 아동¹⁵⁾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가. 필요성

농촌의 영유아 부모는 도시 아동들에 비해 자녀가 뒤쳐진 교육 환경이나 다양한 자극을 접할 기회가 적어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본 연구 보고서 4장 FGI 내용 참조). 좋은 자연 환경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정착한 영유아 부모가 적지 않음에도 그러한 희망의 이면에 또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나 풍부한 교육적 지원이 도시 못지않게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놀이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적 체험 기회, 학습 지도를 위한 교사의 파견 등에 대한 요구 또한 높으나 농촌의 물리적 환경 즉, 지리적 거리가 멀고 이동 시간이 길다는 특성상 도시와 같은 집합 교육, 보육 활동이 쉽지 않다. 즉 일정한 공간에 영유아와 부모를 모집하여 일시에 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고 영유아 지도를 위한 여러 분야의 강사를 다양하게 먼 지역까지 초빙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난관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화된 온라인 접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기대효과

농촌 환경을 고려하고 아이의 특성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농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불안과 욕구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아동 교육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농촌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청년 가정의 농촌 삶의 질 제고에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15) 농촌의 영유아를 위한 놀이 활동 콘텐츠를 위주로 제안하고 있으나, 비슷한 방식으로 초등 1, 2,학년 아동까지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 추진 방법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여 부모와 함께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 체험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콘텐츠를 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적, 상호 의사소통 방식의 대화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양방향적 온라인 정보가 제공될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가 동시에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면에서 교사가 나와 놀이 활동을 유도할지라도 실제로는 부모가 곁에서 다시 설명하고 이끌어줄 때 영유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집중 시간이 매우 짧음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길이와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농촌 아동 교육콘텐츠 지원은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 활동을 미술적 체험, 음악적 체험, 신체활동, 인지발달 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일정 시간에 온라인으로 정해진 수의 가정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지역농협이나 농촌공공사업 단체에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에는 온라인 송출을 위한 카메라, 음향 및 조명 장비, 인터넷 설비 등의 설비와 인력, 그리고 강사의 영상 강의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영유아 놀이 활동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섭외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 없으나 가정에 인터넷 접속을 위한 컴퓨터 및 모니터, 접속 케이블(또는 와이파이가)이 있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일부 농촌 가정의 경우 사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 대여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V-6-1〉 농촌 아동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의 구조

기관	추진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계획 및 평가 - 사업 비용 국비 지원(50%) - 시범 사업 기획을 통한 사업 지속 가능성 및 효과성 검토
지자체	- 사업 비용 지원(50%) - 사업 위탁체 선정 - 가정 내 인터넷 사용 설비, 컴퓨터 등 장비 활용 실태 확인 및 필요 시 대여 등 지원 (장비 확보)
지역 농협 등 사업 위탁체	- 콘텐츠 개발 관련 이용자 수요 조사 -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자문 참여 필요) - 강사 pool 구성(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온라인 강의 송출 장비, 인력 확보 - 강의 촬영 장소 확보 - 교육콘텐츠 활용 수업 홍보 및 참여 가정 모집 - 콘텐츠 활용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 도출



참고문헌

- 경상남도청(2023).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김은설, 김나영, 김지현, 이경아(2021b).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김지현, 이재희, 안석, 김혜진(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윤재석, 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2021a). 2021년 전국보육 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농림축산식품부(2023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시행 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23b). 20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23c). 2023년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지침.
- 농림축산식품부(2023d). 2023년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지침.
- 보건복지부(2022). 보육통계 2022.
-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서초구가족센터(2023). 내부자료(서초 아이돌보미·119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 농림축산식품부(2023e).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발전계획 ('23-'27)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3a).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가족사업안내(II).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 파이낸셜뉴스(2023. 7. 26). 5월 출생아 1만8천명대 역대 최소...7년 6개월 연속 감소. <https://www.fnnews.com/news/202307261201388517> (2023. 8. 1. 검색)
-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안전부(연도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_「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 (2023. 9. 27.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_「여성농어업인 육성법」 <https://www.law.go.kr> (2023.
9. 27. 검색)

네이버 블로그_[일본에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아이 돌보미) 수료!, <https://blog.naver.com/alchon/222291562571> (2023. 10. 3. 검색)

서울 서초구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영유아복지_아이돌보미 지원_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사업,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2023. 8. 1. 검색)

서울특별시 홈페이지_서울소식_서울시 정책 뉴스_나왔다!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영아·등하원·아픈아이,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6679 (2023. 7. 10. 검색)

서초구 가족센터_서초구 아이·손주돌봄 홈페이지,
https://www.seochofamily.com/child_biz.php (2023. 8. 2.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2023. 8. 7.
검색)

일본 안주마만 홈페이지, <http://anju-maman.jp/family-support/> (2023. 10.
3. 검색)

호주 정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bout-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australia/approved-care-types/home-care> (2023. 10. 3. 검색)



부록

부록 1. 농촌 영유아 가정의 육아 현황과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문1.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응답자 주소	()사도 ()군 ()읍면		
거주지역 특성	① 산간벽지 ② 도서 ③ 일반농어촌 ④ 상업지역 ⑤ 기타()		
(최근 10년내) 귀농 귀촌 여부	① 예 (귀촌연도:____) ② 아니오		
영농가정 여부	① 영농 가정임 ② 영농 가정 아님		
다문화가정 여부	① 다문화 가정임 ② 다문화 가정 아님		
영유아와의 관계	① 모 ② 부 ③ 조모 ④ 조부 ⑤ 기타()		

문2. 자녀 정보

귀하의 자녀(혹은 손자녀)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 중 큰 아이부터 순서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연령(만)		기관 이용 현황	장애 여부
자녀1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 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타 기관() ④ 기관 이용 없음	①장애 있음 ②장애 없음
구분	연령(만)		기관 이용 현황	장애 여부
자녀2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 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타 기관() ④ 기관 이용 없음	①장애 있음 ②장애 없음
구분	연령(만)		기관 이용 현황	장애 여부
자녀3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 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타 기관() ④ 기관 이용 없음	①장애 있음 ②장애 없음

문3. 부모 배경

		1) 부	2) 모
3-1.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④ 대학교(4년제)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⑨ 비해당/모름		
3-2. 근로 여부	① 근로(시간제근로 포함) ② 비근로 ⑨ 비해당/모름		
3-3. 직업	① 농림어업 종사자 ② 사무 종사자/교사 ③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④ 관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⑧ 단순노무 종사자 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⑩ 전업주부 ⑪ 기타()		
3-4. 근무 시간	① 하루 종일(오전 6~7시경부터 저녁 8시 이후까지) ② 오전·오후(오전 8~9시경부터 오후~6시까지) ③ 새벽(오전 4~5시 ~ 오전 9시 이전) ④ 반일(오전 9시~오후1시 또는 오후 12시 이후~오후 6시) ⑤ 저녁 또는 밤(오후 6시 이후~오전 5시 이전) ⑥ 집에서 가사 ⑨ 비해당/모름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번기의 근무시간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3-5. 월 평균 가구 소득 (세전)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⑨ 비해당/모름		
3-6 승용 차량 소유 여부	① 차량 있음 (→ 3-6-1에 응답) ② 차량 없음		
3-6-1 운전 여부	① 운전면허가 있고 자가용 차량 운전함. ② 운전면허가 있으나 차량 운전 하지 않음. ③ 현재 운전면허가 없음.		

※ 이하 질문에 대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연소/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4. 귀하는 거주하는 (농촌)지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모름/ 비해당
	1	2	3	4	5	9
1. 영아자녀(0~35개월) 돌봐줄 기관(어린이집)이 부족하다						
2. 유아자녀(만3~5세: 미취학)를 돌봐줄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 부족하다						
3. 초등자녀를 방과후에 돌봐줄 기관(지역아동센터 등)이 부족하다						
4.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사고 등)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						
5. 친구 및 친척 등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6. 이용하고 있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 집에서 너무 멀다						
7.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등)을 구하기 어렵다						
8.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						
9.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예체능, 영어 등 특별 활동(방과후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						
10. 집 근처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11. 다른 부모와 소통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						
12. 자녀양육 관련 부모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						
13.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가 부족하다						
14. 농촌에는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③④⑤ 응답 시 문 8에도 응답)						

문5. 문4에서 제시된 내용 중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는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문6.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등원 또는 하원 시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이용하고 있음. (→문 6-2)
- ②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만 본인 자녀는 이용하지 않음.(→문 6-1)
- ③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음.(→문7)

문6-1. (문6번에서 ②번 응답) 자녀가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우리 집이 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차량이 오지 않아서. (→문 6-1-1)
- ② 어린이의 차량 이용은 안전 면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문 6-1-1)
- ③ 거리가 멀어 너무 오래 차를 타게 되는 것이 싫어서. (→문 6-1-1)
- ④ 부모나 가족이 직접 데려다 주는 것을 더 선호해서.(→문7)
-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6-2. 차량을 탑승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등/하원 각각 소요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작성 후 →문7)

등원 _____(분) 하원 _____(분)

6-1-1. 만일 기관차량을 가장 단시간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사이 중간 경유지를 두고 거기까지만 부모가 데려다 준 후 기관차량이 와서 태워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이 때 중간 경유지에는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실내공간과 담당 교사가 있어 안전하게 기관차량이 올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 ① 이용 의사 있음 ② 이용 의사 없음

문7. 평일 기준을 낮 시간 동안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어린이집
- ③ 유치원

- ④ 반일제 학원
- ⑤ (공공) 아이돌보미(비혈연 파견 돌봄인력)
- ⑥ 민간 육아도우미(비혈연 파견 돌봄인력)
- ⑦ 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⑧ 이웃 또는 친지
-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7-1. 문7번에서 응답한 돌봄기관이나 인력은 귀하가 희망하는 양육방식
입니까?

- ① 희망하는 양육방식임
- ② 희망하는 양육방식이 아님 ☞ 문 7-1-1번으로 이동

문7-1-1. (문7-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가 직접 돌봄
- ② 어린이집
- ③ 유치원
- ④ 반일제 학원
- ⑤ (공공) 아이돌보미(비혈연 가정파견 돌봄인력)
- ⑥ 민간 육아도우미
- ⑦ 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⑧ 이웃 또는 친지
-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7-2. (문7번에서 ②, ③번에 응답한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문8)
- ② 아니오 ☞ 문 7-2-1번으로 이동

문7-2-1. (문7-2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희망하는 이용시간은 언제입니까? 등원시각과 하원 시각을 구분하여 각각 희망하는 이용시간을 작성해주시요.

※ 등원시각은 집에서 출발하여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하원시각은 기관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희망 이용시간대	
희망 등원 시각 ※ 작성 예시: 08:15분	희망 하원시각 ※ 작성 예시: 19:00

문8. (문4의 14번 항목 ③,④,⑤ 응답자) 만일 귀하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한 온라인 놀이교실, 온라인 학습 지도, 영어 수업 등)를 정부가 지원하여 진행된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8-1) ② 없음(→문9)

문 8-1. 자녀를 위한 대화식 온라인 강좌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는 가장 어린 막내 자녀가 아니라 자녀 전체를 고려하여 답하셔도 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미술 교육 프로그램(회화, 공예 등)
- ② 음악 교육 프로그램(성악, 악기 등)
- ③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교구를 이용한 놀이 등)
- ④ 영어 교육 프로그램(영어 놀이, 말하기 등)
- ⑤ 한글 교육 프로그램(한글 책읽기, 쓰기 등)
- ⑥ 운동 프로그램(엄마와 함께 하는 체조 등)
- ⑦ 코딩 교육 프로그램(유아에 적절한 코딩 교육 등)
-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9. 다음은 농촌 지역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지원 방안들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설명	필요성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4	3	2	1
시간제 보육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당 1천 원 이용 비용,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단위 부모들이 모여 육아정보 공유, 장난감 이용 놀이공간 제공				
농촌형 육아도우미1)	영농가정에 육아도우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현행 아이돌보미보다 완화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돌보미 채용 가능.(예. 현행 80시간 교육 필수 → 40시간으로 완화 등)				
조기돌봄센터2)	오전 9시 이전 조기 돌봄 필요시 돌봄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유치원까지 차량 이동 제공				

- 1) 농촌형 육아도우미: 농촌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채용하고 파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자격 필요 요건인 양성 교육 시간을 축소하거나 추가 교통수당 등 지원 수준을 높여 돌보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2) 조기 돌봄 및 차량환승센터: 여름 농번기, 혹은 주변 도시 직장으로의 장거리 통근 등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아침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공간에서 보육교사가 1-2시간 돌보다가 자녀가 원래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까지 개별적으로 데려다주는 보육서비스

문10. 문9에서 제시된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어느 항목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단, 2순위가 없는 경우는 1순위만 응답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문11. 귀하는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선호하는 양육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가정으로 파견되는 돌보미가 자녀를 돌봄

☞ 문11-1번으로 이동

- ②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시설(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자녀를 맡김
 ③ 인근의 소규모 돌봄센터(전문 돌봄인력이 배치된 시설)에 자녀를 맡김
 ④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연장하여 자녀를 돌봄
 ⑤ 기타(구체적으로:)

문11-1. (문11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댁은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통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시간대를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주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구분	시작시간 ※ 작성 예시: 08:15	종료시각 ※ 작성 예시: 19:15
1. 주말(토요일)	() : ()	() : ()
2. 주말(일요일)	() : ()	() : ()
3. 야간	() : ()	() : ()
4. 새벽	() : ()	() : ()

문11-2. (문11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댁은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일수는 월 기준으로 며칠입니까? 매월 필요한 일수가 다른 경우는 농번기 등 가장 많이 필요한 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1개월 기준: 총 _____ 일 필요

문11-3. (문11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보시기에 긴급할 때 가정으로 파견되는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자녀연령은 언제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을 최소 기준으로 선택해주시시오. (※최소 기준: ‘최소한 이 정도 연령 기간에는 필요함’을 의미)

- ① 0~35개월 까지
- ② 만 5세 이하(미취학 아동) 까지
- ③ 초등 저학년(1~2학년) 까지
- ④ 초등 고학년(3~6학년) 까지
- ⑤ 기타(구체적으로:)

문12. 농촌에서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지원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